

2023년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조사

이윤진·김자연·조혜주



2023년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조사

저

자

이윤진, 김자연, 조혜주

연

구

진

연구책임자 이 윤 진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 자 연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조 혜 주 (육아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23-06

2023년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조사

발행일 2023년 10월
발행인 박상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육아정책연구소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주)승림디엔씨 02-2271-2581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6865-054-1 9333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리말

‘첫만남이용권’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하나로, 자녀 출산으로 경력단절이나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육아정책이다.

부모(보호자)가 출생신고하면 자녀 1명당 200만 원 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받는데, 일부 사행업종 등 부적절한 업종을 제외하고는 온라인, 오프라인 상관 없이 폭넓게 사용할 수 있어서 부모(보호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기분 좋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본 설문조사에서 의하면, ‘첫만남이용권’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 업종은 ‘산후조리원’이며 육아용품, 의료비, 식·음료비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부모(보호자)들이 본 정책 취지에 맞게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2023년 2분기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치 0.70명을 기록했다.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출산율이 반등할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부모 면담조사를 해 보면, 거의 대부분 부모들이 ‘첫만남이용권’이 선물 받은 것처럼 고마운 정책이지만, 이러한 일회성 정책으로는 추가 출산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첫만남이용권’이 다른 육아정책들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서 장기적으로 출산율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발전하길 바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와 면담조사에 참여해 주신 부모님들, 그리고 전문가분들께 지면을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23년 10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박 상 희



목차

요약	1
I. 서론	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2. 연구내용	10
3. 연구방법	10
II. 첫만남이용권 사업 개요	15
1. 첫만남이용권 사업 도입 배경 및 목적	17
2. 첫만남이용권 신청 및 이용 절차	20
III. 첫만남이용권 이용 실태 및 만족도	25
1. 응답자 및 자녀 특성	27
2. 첫만남이용권 인지 및 신청 현황	29
3. 첫만남이용권 이용 실태	37
4.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44
5. 첫만남이용권과 추가출산 계획 등	51
IV. 결론	65
1. 연구요약	67
2. 정책제언	70
참고문헌	73
부록	75
부록 1. 면담지	75
부록 2. 설문지	77
부록 3. 부표	85



표 목차

〈표 Ⅰ-3-1〉 2022·2023 첫만남이용권 전액 소진자(모집단)	11
〈표 Ⅰ-3-2〉 표본설계: 권역/연령대별 비례할당	11
〈표 Ⅰ-3-3〉 첫만남이용권 설문지 내용	12
〈표 Ⅰ-3-4〉 부모 대상 면담조사 참여자 특성	13
〈표 Ⅰ-3-5〉 부모 대상 면담조사 참여자 자녀 특성	13
〈표 Ⅰ-3-6〉 전문가 자문회의	14
〈표 Ⅱ-1-1〉 첫만남이용권 근거법	19
〈표 Ⅱ-1-2〉 첫만남이용권 추진 경과	20
〈표 Ⅲ-1-1〉 응답자(보호자) 특성	27
〈표 Ⅲ-1-2〉 첫만남이용권 해당 자녀특성	29
〈표 Ⅲ-2-1〉 첫만남이용권 인지 시점	30
〈표 Ⅲ-2-2〉 첫만남이용권 신청자	32
〈표 Ⅲ-2-3〉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33
〈표 Ⅲ-2-4〉 첫만남이용권 주요 이용자	36
〈표 Ⅲ-3-1〉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현황	40
〈표 Ⅲ-3-2〉 첫만남이용권 사용처별 사용대상(중복응답)	42
〈표 Ⅲ-3-3〉 본 면담조사 참여자들 사용처	44
〈표 Ⅲ-4-1〉 첫만남이용권 신청/이용 편리성 및 전반적 만족도	45
〈표 Ⅲ-4-2〉 본 면담조사 참여자들의 이용 만족도	46
〈표 Ⅲ-4-3〉 첫만남이용권 불만족 이유(중복응답)	47
〈표 Ⅲ-4-4〉 첫만남이용권이 타 지원정책 대비 양육 부담 경감수준	49
〈표 Ⅲ-5-1〉 향후 추가 자녀 계획	52
〈표 Ⅲ-5-2〉 향후 추가 자녀 계획이 없는 이유	54
〈표 Ⅲ-5-3〉 첫만남이용권의 자녀계획 영향력	56
〈표 Ⅲ-5-4〉 첫만남이용권'의 금액 적정 여부	58
〈표 Ⅲ-5-5〉 정책수요자가 희망하는 '첫만남이용권' 적정 금액	61
〈표 Ⅲ-5-6〉 '첫만남이용권' 금액 확대 시, 추가 출산 의향	62



그림 목차

[그림 II-1-1]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 추진전략 중 첫만남이용권 근거 전략	18
[그림 II-2-1] 첫만남이용권 사업 추진 체계	22
[그림 II-2-3] 첫만남이용권 신청 절차	23
[그림 III-3-1] 첫만남이용권 1년간 업종별 사용 금액 (2022.4.1.~2023.3.31.)	39
[그림 IV-1-1] 2022년·2023년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비교	68
[그림 IV-1-2] 2022년·2023년 첫만남이용권 가계경제 도움 비교	68
[그림 IV-1-3] 2022년·2023년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비교	68
[그림 IV-1-4] 2022년·2023년 첫만남이용권이 추가 출산 영향력	70
[그림 IV-1-5] 2022년·2023년 첫만남이용권 금액 확대 시, 추가 출산 의향 ..	70



부록 표 목차

〈부표 1〉 첫만남이용권 사용처별 사용대상: ① 육아용품(중복응답)	85
〈부표 2〉 첫만남이용권 사용처별 사용대상: ② 식음료비(중복응답)	86
〈부표 3〉 첫만남이용권 사용처별 사용대상: ③ 의료비(중복응답)	87
〈부표 4〉 첫만남이용권 사용처별 사용대상: ④ 산후조리원(중복응답)	88
〈부표 5〉 첫만남이용권 사용처별 사용대상: ⑤ 생활용품(중복응답)	89
〈부표 6〉 첫만남이용권 사용처별 사용대상: ⑥ 문화생활비(중복응답)	90
〈부표 7〉 첫만남이용권 사용처별 사용대상: ⑨ 교통비(중복응답)	91
〈부표 8〉 첫만남이용권 사용처별 사용대상: ⑩ 기타(중복응답)	92
〈부표 9〉 첫만남이용권 신청/이용 편리성: ① 신청 방법	93
〈부표 10〉 첫만남이용권 신청/이용 편리성: ② 이용가능업체/물품	94
〈부표 11〉 첫만남이용권 신청/이용 편리성: ③ 이용기간	95
〈부표 12〉 첫만남이용권 신청/이용 편리성: ④ 전반적인 만족도	96
〈부표 13〉 2023년 출산/양육 정책 관련 제안(중복응답)	97



요약

1. 서론

가.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2년차에 접어드는 첫만남이용권 사업의 정책수요자(부모/보호자) 대상으로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모색함으로써 동 사업의 안정화, 고도화를 도모하는 데 있음.

나. 연구방법

- 설문조사, 심층면담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등을 실시함.
 - 설문조사는 2023년도 첫만남이용권 소진자(1월~6월) 2,000명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함(조사기간: 2023년 9월18일~25일).
 - 심층면담조사는 아버지 그룹(4명), 어머니 그룹(3명)으로 FGI조사(집단심층면담조사)와 아버지 2명, 어머니 2명 IDI조사(개별심층면담조사)를 실시함.

2. 첫만남이용권 사업 개요

가. 첫만남이용권 사업 도입 배경 및 목적

- 첫만남이용권 도입 배경
 - 첫만남이용권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의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추진 전략에 정책과제로 포함된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 도입되었음.
- 첫만남이용권 목적 및 추진 경과
 -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여 생애초기 가정 내 양육 비용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함(보건복지부, 2023:3).
 - 근거법령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3항~제6항,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시행령 제1조의 2임(보건복지부, 2023:3).

- 첫만남이용권은 2020년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의 핵심과제로 발표된 후 2021년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쳤다. 당해연도 12월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1년 12월 14일 공포되었음.

나. 첫만남이용권 신청 및 이용 절차

□ 첫만남이용권 신청대상 및 지급방식

- 첫만남이용권 신청대상은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를 통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임. 지급대상 범위에는 복수국적자 및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 조치된 아동도 모두 포함됨(보건복지부, 2023:4).
- 지급방식은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인 바우처 형태가 원칙이며, 아동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를 받는 아동은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함(보건복지부, 2023:5).
- 사용 기한은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이며, 미사용시 자동소멸됨(보건복지부, 2021:5).
- 첫만남이용권 신청은 아동 보호자 누구나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내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접수를 하거나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정부 24를 통해 가능함(보건복지부, 2023:7).

3. 첫만남이용권 이용 실태 및 만족도

가. 응답자 및 자녀 특성

□ 응답자(부모/보호자) 특성

- 2023년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보호자)는 남성이 23.6%, 여성이 76.4%임. 연령별로는 30대가 76.1%로 가장 많았음.
- 자녀수는 2명이 55.3%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월 가구소득은 300만원 미만 이 26.2%, 300만원-400만원 미만이 25.7%로 비슷하였음. 맞벌이 여부는 외벌이가 52.0%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응답자의 최종 학력은 4년제 졸업이 45.9%로 가장 많았음.

□ 자녀 특성

- 첫만남이용권 해당 자녀가 다태아의 경우 자녀의 성별을 중복으로 응답하여 자녀 성별은 남아가 51.7%, 여아가 52.1%로 나타남. 해당 자녀의 출생순위는 둘째라는 응답이 47.9%로 가장 많았으며, 다태아 여부는 아닌 경우가 90.6%로 대다수였음.

나. 첫만남이용권 인지 시점

□ 첫만남이용권 인지 시점

- 첫만남이용권 인지 시점은 임신 전 혹은 임신을 준비하는 시기 (49.8%), 임신 중(46.4%), 출산 직후(1.9%), 출생신고 시(1.6%), 출산 후 한 달 지나서 (0.4%)의 순으로 대부분 임신 준비 시기와 임신 중에 첫만남이용권을 인지하고 있음.

□ 첫만남이용권 신청자

-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의 신청자는 자녀의 어머니(61.6%), 자녀의 아버지(38.4%), 자녀의 조부모(0.1%)로 나타남.

□ 첫만남이용권 주요 이용 가족

- 주 사용자는 자녀의 어머니(94.5%)이며 자녀의 아버지(5.1%)를 포함하여 자녀의 조부모 및 다른 가족들의 이용 비율은 낮음.

□ 첫만남이용권 신청 방법

-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하는 방문 신청(69.9%), 온라인 신청(30.2%)로 나타남. 이는 2022년 조사 결과와 유사함.
- 방문 신청은 권역의 경우 서울(59.3%)에 비해 강원/제주 지역(76.1%)로 대략 17% 정도의 차이가 있었음.

다. 첫만남이용권 이용 실태

□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 2023년 만족도조사에서 첫만남이용권의 주요 사용처는 산후조리원(48.2%), 육아용품(15.1%), 의료비(14.5%), 식·음료비(13.5%), 생활용품(5.1%)의 순으로 나타남.

- 산후조리원에 이용한 비중은 자녀수에 따라 1명(67.5%), 자녀 2명 (43.4%), 자녀 3명 (33.7%)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으며, 식·음료비에 대한 지출 비중은 자녀수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었음.

□ 첫만남이용권 사용처별 사용대상

- 첫만남이용권으로 주로 사용한 육아용품, 식음료비, 의료비는 해당 자녀를 위해 사용했다는 응답이 훨씬 많음. 산후조리원은 자녀(68.7%)와 가족(본인 포함)(62.5%)을 위해 사용했다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옴.
- 이외에도 가족(본인포함)을 위해 생활용품을 사용한 경우도 많았음.

라.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 첫만남이용권 신청/이용 편리성

- 첫만남이용권 신청 방법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평균 4.49점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 전반적 만족도(4.47점), 이용 기간(4.40점), 이용 가능 업체/물품 (4.36점)임.

□ 첫만남이용권 불만족 이유

- 첫만남이용권이 불만족한 이유(N=284)는 바우처 금액이 부족해서(77.1%), 바우처 지급이라 사용처가 제한되서(32.7%), 자녀 출산 후에야 발급 받을 수 있어서(27.8%), 신청 후 바로 지급되지 않아서(25.7%), 아동 출생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해야 해서(16.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첫만남이용권의 경제적 부담 경감 도움 수준

- 경제적 부담의 경감은 5점 척도를 기준으로 조사하였으며 평균 4.01점으로 나타나 2022년 조사 결과값 4.28점에 비해 다소 하락함.

□ 첫만남이용권의 타 지원정책 대비 양육 부담 경감 수준

- 첫만남이용권이 타 지원정책과 비교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는 수준은 부모급여(4.38점), 임신출산의료비지원(4.36점), 아동수당(4.11점)으로 확인됨.
- 부모급여와 임신출산의료비지원과 비교해서는 도움이 크다고 볼 수 있고, 아동수당보다는 도움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이상 3개 정책들의 목적과 지급 기간, 지급 방식 등이 다르므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첫만남이용권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액도 크고,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서 긍정적으

로 평가함.

마. 첫만남이용권과 추가출산 계획

□ 추가출산 계획

- 향후 출산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약 76%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옴. 자녀수 1명, 맞벌이 가정, 대학원졸 가구에서 추가 출산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옴.
- 2022년과 비교하면, 추가 출산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상승(60.9% →75.6%), 향후 1명을 더 낳겠다는 응답은 34.7%에서 20.7%로 하락함.

□ 추가출산 계획이 없는 이유

- “계획한 자녀를 낳아서”(33.0%), “양육/교육 비용부담” (28.9%), “자녀양육과 일 병행 부담”(16.3%) 순으로 나옴.
- 2022년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양육/교육 비용부담”이 1순위, “계획한 자녀를 낳아서”가 2순위로 나왔고, 3순위는 동일함.

□ 첫만남이용권의 자녀계획 영향력

- 향후 자녀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489명)에게 첫만남이용권이 자녀계획 수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본 결과, 그렇다(약간+매우)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가 65.2%임. 이 중 “매우 그렇다”가 42.3%로 첫만남이용권이 추가 출산 계획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침. 5점 척도점수로 환산하면 3.84점임.
- 그러나 2022년도에는 4.25점(5점 만점)이며 “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이 57.8%로 절반 이상이 나와, 전년 대비 긍정적 영향력이 낮아짐.

□ 정책수요자가 희망하는 적정 금액

- 5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 3.06점이며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27.7%로 가장 많아서 금액에 대한 만족도는 그다지 높지 않음.
- 2022년 조사와 비교해서도 “보통이다”와 긍정적인 “그렇다”(약간+매우) 응답 모두 감소함. 즉, 금액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짐.
- 금액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대상자들(697명)에게 희망하는 적정 금액을 오픈 문항으로 알아본 결과 평균 594.69만원(표준편차 976.27), 중위값 500.00만원으로 집계됨. 최소 금액은 201만원, 최대 금액은 10,000만원(1

억원)임.

□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확대와 추가 출산

- 정부가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금액을 확대할 경우, 자녀를 추가 출산할 계획이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그렇다”(약간+매우)는 긍정적 응답이 46.4%, “그렇지 않다”(전혀+별로) 37.7%로 약 10%가까이 많이 나옴.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22.6%로 “매우 그렇다” 23.1% 못지않게 많았음.
- 2022년 조사와 비교하면 첫만남이용권 금액 확대 시, 추가 출산을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55.1%에서 46.4%로 감소하였고 대신, 부정적 의견이 28.3%에서 37.7%로 상승함.

4. 정책제언

- 2022년 대비 만족도는 대체로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첫만남이용권은 타 육아 정책과 비교해서 정책수요자들에게 호응도가 높고, 실제 가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분 좋은”¹⁾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매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의 안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현행처럼 일시 지급, 사용 기간(발급 후 1년 내), 사용처의 극히 일부 제한 등의 기초를 유지함.
- 첫만남이용권의 발급 시기가 개인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이를 해소하여 사용의 편리성을 제고함.
-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만족도 조사에서는 지역규모별 분석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차이를 더 규명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바우처) 카드 사용처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확한 사용처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2022년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분석한 카드 사용처 결과와 설문조사 결과의 1순위가 달랐음.

1) 본 면담조사에서 나온 용어라서 인용표시함.

I

서론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02 연구내용

03 연구방법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첫만남이용권은 2020년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 사업인 “영아기 집중 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2. 4. 1). “영아기 집중 투자 사업”으로는 첫만남이용권 외에 부모급여(당시 영아수당),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 확대(만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가 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1.12.3.).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기존 사업을 확대 및 변경한 것이지만, 첫만남이용권은 신설된 사업이다.

정부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첫만남이용권’(바우처 200만원)을 도입하였고, 2022년 4월 1일부터 추진되었다.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출생 아동부터 지급되었는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200만원 바우처, 일시금)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되며 아동출생일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2. 4. 1).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의하면, 2022년 4월~2023년 3월 동안 첫만남이용권을 제공받은 대상자는 약 30만3천명이며 사용 가능 바우처 6072억 원 중 약 5433억원이 실제 사용되었다고 발표하였다(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3. 4. 11: 1).²⁾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2022년도에 첫만남이용권 소진자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2)하였는데 전반적인 이용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79점으로 매우 높게 나왔다(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보도자료, 2023. 4. 11: 2).

본 연구의 목적은 2년차에 접어드는 첫만남이용권 사업의 정책수요자(부모/보호자) 대상으로 작년에 이어서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모색함으로써 동 사업의 안정화, 고도화를 도모하는데 있다.

2) 참고로 2022년 출생아수는 24만9천명이며(통계청a, 2023. 8.30.: 1), 2023년 1, 2분기 출생아수는 12만 343명이다(통계청b, 2023. 8.30.: 3).

2. 연구내용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2년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설문지 조사를 토대로 조사문항 보완, 수정 및 새로운 문항을 구성하였다.

둘째, 첫만남이용권의 도입 배경 및 목적 등 사업 개요를 살펴보았다.

셋째, 2023년 첫만남이용권 소진자 대상으로 이용실태와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아울러 연령, 가구소득, 맞벌이 여부, 권역, 학력 등에 따른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

넷째, 첫만남이용권의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을 제시하였다.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첫만남이용권 관련한 정부자료, 보도자료, 신문자료 등을 수집 분석하였다. 또한, 2022년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조사를 수집하여 2023년 조사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나. 설문조사

2023년 첫만남이용권 이용자 중 200만원 바우처를 전부 사용한 소진자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022년 설문조사의 기본틀과 동일하게 전국의 20~40대 2,000명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가지고 온라인(모바일)으로 2023년 9월 18일~9월 25일 약 일주일 동안 실시하였다.

첫만남이용권 발급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협조로 모집단 자료를 받아서(표 I-3-1 참조) 권역과 연령별 분포를 고려하여 비례할당하였다. 요컨대 2023년도 첫만남이용권 소진자 전체 모집단에서 연락처(핸드폰번호)가 있는 사례 14,541명을 추출하여 권역과 연령을 기준으로 비례할당하였다. 다만, 2022년 조사에서는 남성을 제외하였으나 2023년 조사에는 남성을 포함하였다. 2022년과

2023년도의 모집단의 차이가 나는 것은 출생아 수가 감소한 것도 있지만, 2022년은 일 년 기준인 반면, 2023년에는 상반기 6월까지 소진자이기 때문이다.

〈표 I-3-1〉 2022-2023 첫만남이용권 전액 소진자(모집단)

단위: 명

항목	2022(1~12월)	2023(1~6월)
전체	194,553	69,322
성별		
여성	190,020	67,917
남성	4,533	1,405
연령		
10	33	14
20	11,262	5,548
30	147,543	53,969
40	35,372	9,689
50대 이상	343	102
권역		
서울/인천	45,926	16,306
경기	59,771	21,976
충청	21,663	7,920
경북	20,586	7,393
경남	21,965	7,686
전라	16,556	5,196
강원/제주	8,086	2,845

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내부자료

〈표 I-3-2〉 표본설계: 권역/연령대별 비례할당

권역	20대	30대	40대	총합계
서울/인천	28	309	71	408
경기	49	467	89	605
충청권	25	174	33	232
경북권	18	146	30	194
경남권	21	208	44	273
전라권	19	135	25	179
강원/제주	12	83	14	109
총합계	172	1522	306	2,000

설문지 문항은 2022년도 설문지를 기본틀을 유지하되 첫만남이용권 해당 자녀 관련 문항, 가구 문항, 이용실태에서 신청자와 주사용자 문항, 사용처의 세분화, 불만족한 이유, 타 정책들과의 도움 비교 세분화, 첫만남이용권 적정 금액을 오픈 문항으로 제시 등등 수정, 보완하였다. 다음 <표 I-3-3>에서 굵은 표시가 2023년에 변경된 문항들이다.

〈표 I-3-3〉 첫만남이용권 설문지 내용

설문목차	내용
I. 응답자 특성	• 성별 • 연령 • 거주 지역(시/도, 시/군/구) • 자녀 수(임신 중 자녀 제외) • 현재 임신 여부 • 외벌이/맞벌이/무직 여부 • 최종학력
II. 첫만남이용권 해당 아동 특성	• 자녀 성별 • 자녀 출생순위 • 다태아(쌍둥이) 여부
III.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이용 실태	• 처음 알게 된 시기 • 신청 방식 • 신청자 • 사용처 • 주사용자 ※ 2022년 인지요부 문항삭제
IV.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이용 만족도	• 신청 및 이용 만족도, 불만족한 이유
V. 첫만남이용권 정책과 추가 출산 여부 등	• 향후 자녀 출산 계획 • 추가 자녀 계획 수립 시 ‘첫만남이용권’이 미친 영향 • ‘첫만남이용권’의 생애초기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에의 도움 여부 • 다른 출산육아지원정책들과 비교해 ‘첫만남이용권’의 출생초기 양육부담 경감에의 도움 여부 •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금액의 적정 여부 및 적정 금액 •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금액 확대 시 향후 자녀 출산 의향 • 출산/양육 지원과 관련해 ‘첫만남이용권’ 개선점, 제안점
VI. 통계 분류	• 월 평균 가구소득(세전 기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다. 면담조사

면담조사의 주요 목적은 설문지의 보기 문항 발굴 및 결과 분석 시 보완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2022년과 2023년 첫만남이용권을 발급받은 부모 대상으로 FGI(집단심층면담조사)와 IDI(개별심층면담조사) 두 가지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FGI조사는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아버지 그룹과 어머니 그룹으로 나뉘어서 실시하였으며(각각 2023년 9월 5일, 9월 6일) IDI 조사는 지방에 거주하는 부모 대상으로 2023년 9월 중에 실시하였다. 사례 3을 제외한 나머지 10사례들은 면담 조사 기준으로 첫만남이용권 금액을 모두 소진하였다.

〈표 I-3-4〉 부모 대상 면담조사 참여자 특성

구분		자녀와 관계	연령대	거주 지역	동거 가족 수	본인직업	최종 학력	맞벌이 여부	월 가구소득
FGI ³⁾ 1	1	부	40	서울	4	앱 기획	대학원졸	O	600만원
	2	부	40	인천	3	공기업 사원	대졸	O	500만원
	3	부	30	서울	3	서비스직사무직	대졸	X	350만원
	4	부	30	남양주	3	사무직	대졸	X	400만원
FGI 2	5	모	40	성남	4	공무원(휴직중)	대졸	O	450만원
	6	모	30	서울	4	전업주부	대졸	X	600만원
	7	모	20	서울	3	전업주부	대졸	X	400만원
IDI ⁴⁾	8	부	20	평택	3	보안팀	전문대졸	X	270만원
	9	부	30	전남	4	소프트웨어 개발	대학원졸	O	500만원
	10	모	20	충북	3	전업주부	대졸	X	300~400 만원
	11	모	30	충북	3	사무직	대졸	O	400~500 만원

주: 동거가족수는 본인 포함임.

면담조사 참여자들의 해당 자녀들은 다음과 같다. 다태아 및 장애아는 없었다. 성별은 남아 5명, 여아 6명이며 출생순위는 첫째가 6명, 둘째가 4명, 셋째가 1명이었다.

〈표 I-3-5〉 부모 대상 면담조사 참여자 자녀 특성

구분		자녀 성별	출생연도	출생순위	장애여부
FGI 1	1	여	2023	2	X
	2	남	2022	1	X
	3	남	2022	1	X
	4	여	2023	1	X
FGI 2	5	여	2022	3	X
	6	여	2023	2	X
	7	여	2022	2	X

3) Focus Group Interview 의 약자임.

4) In Depth Interview 의 약자임.

구분		자녀 성별	출생연도	출생순위	장애여부
IDI	8	남	2023	1	X
	9	남	2022	2	X
	10	여	2022	1	X
	11	남	2022	1	X

라. 전문가 자문회의

전문가 자문회의는 설문조사 전과 후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전에는 다양한 학문 배경을 지닌 사회조사 전문가 4명에게 설문지 문항의 타당성에 대해 자문을 받았다. 설문조사 이후에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전문가에게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첫만남이용권의 개선방안 중심으로 자문을 받았다.

〈표 I-3-6〉 전문가 자문회의

구분	내용	
설문조사 전	목적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조사 설문지 문항 검토
	대상	정출연 사회조사 전문가 4명(경제학, 행정학, 교육학, 사회학)
	기간	2023. 8. 29 ~ 2023. 9. 1
	방법	서면
설문조사 후	목적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조사 결과 공유 및 개선방안 도출
	대상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운영위원회 위원 등
	기간	2023. 10.23 ~ 2023. 10.25
	방법	대면 및 서면

마.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본 과제는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의 제안으로 수행된 수시과제라는 점에서 담당 공무원과 수시로 회의 및 협의를 하였다. 부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첫만남이용권 발급자 현황 자료를 지원하였으며 2022년에 실시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2023년 추가, 보완하는 문항을 함께 검토하였다.

2차 전문가 자문회의 후에 최종적으로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실시하여 2023년 조사결과를 토대로 개선점을 모색하였다.

II

첫만남이용권 사업 개요

01 첫만남이용권 사업 도입 배경 및 목적

02 첫만남이용권 신청 및 이용 절차

II. 첫만남이용권 사업 개요

이 장에서는 202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첫만남이용권의 도입 배경과 취지, 이용절차 등 사업 개요를 다루었다.

1. 첫만남이용권 사업 도입 배경 및 목적

가. 첫만남이용권 사업 도입 배경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에는 4개 추진 전략이 세워져 있다(대한민국 정부, 2020: 49). 4개 추진 전략 중 하나인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에는 [그림 II-1-1]과 같이 5개의 핵심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4번째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⁵⁾ 핵심과제에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이 포함되었다(대한민국 정부, 2020: 75-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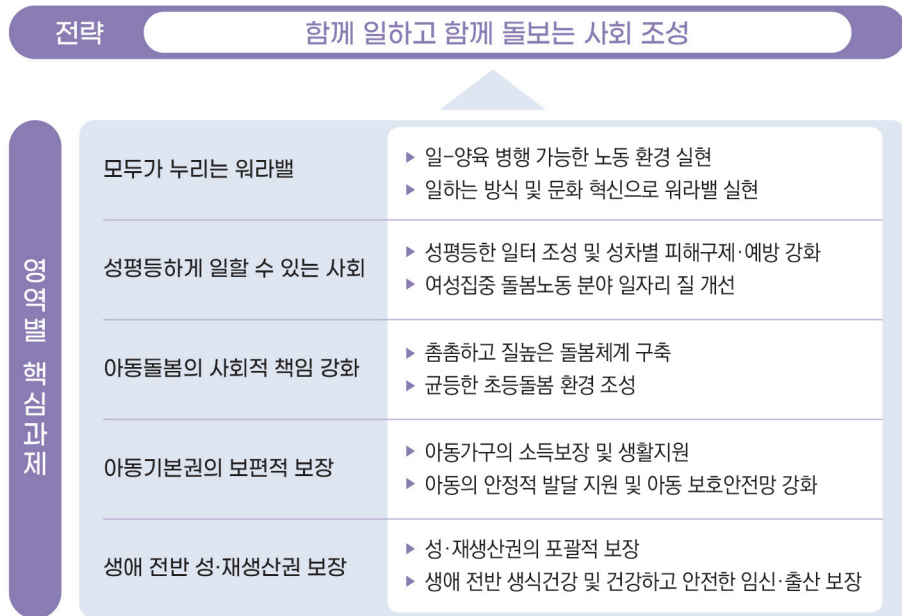
‘아동 기본권의 보편적 보장’의 하위 추진과제 중 하나인 ‘아동가구 소득보장 및 생활지원 강화’에 영아기 집중투자사업이 포함되어 있다(대한민국 정부, 2020: 77-78).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도입 배경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의 수립배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영유아를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질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부족하고, 맞벌이 부모는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 커지고 있는 사회적 배경이 있다(대한민국 정부, 2020: 19).

우리나라 가족지출 수준은 전체 GDP 대비 1.48% 수준(2019년 추정기준)으로 OECD 평균인 2.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가족지출 중에서도 현금지원은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대한민국 정부, 2020:33). 반면, 출산·양육 서

5)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은 개인적 가치가 중요해진 사회적 분위기에 맞추어 아동 양육 지원의 핵심과제를 부각하고, 아동이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사회보장의 직접적 수혜자로 인식하여 ‘아동 최우선 원칙’을 고려한 정책과제이다(대한민국 정부, 2020:75-76).

비스 위주 정책 확장으로 양육비용이 여전히 부담된다는 국민의 체감도도 주요 도입 배경으로 볼 수 있다(대한민국 정부, 2020:34).

[그림 II-1-1]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 추진전략 중 첫만남이용권 근거 전략



출처: 대한민국 정부(2020).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p. 51.

이러한 사회적 배경 하에 첫만남이용권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2025)」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 도입되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2. 4.1).

나. 첫만남이용권 사업 목적 및 추진 경과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포인트(바우처)를 지급 하여 생애초기 양육 비용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보건복지부, 2023:3).

근거법령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3항~제6항,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이다(보건복지부, 2023:3). <표 II-1-1>를 보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3항~제6항에는 첫만남이용권 지급 목적, 금액, 신청방법에 대

한 내용이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시행령에는 지급 대상·방법·시기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표 II-1-1〉 첫만남이용권 근거법

법령	내용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제3항~제6항 [시행 2023. 12. 26.] [법률 제19843호, 2023. 12. 26., 일부개정]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 ⑤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방법·시기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2. 14.>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시행 2022. 11. 24.] [대통령령 제33003호, 2022. 11. 24., 일부개정]	제1조의2(첫만남이용권의 지급 대상 등) 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른 첫만남이용권(이하 “첫만남이용권”이라 한다)은 출생아동에게 일시에 지급한다. ②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이하 생략). 1.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 위임장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첫만남이용권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이 아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받거나 이송받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청이 적절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첫만남이용권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지급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지급을 결정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첫만남이용권을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출생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수급아동에게는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 ⑥ 첫만남이용권의 사용 기한은 출생아동이 출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법령	내용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2. 3.]

출처: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query=%EC%A0%80%EC%B6%9C%EC%82%B0%EA%B3%A0%EB%A0%B9%EC%82%AC%ED%9A%8C%20%EA%B8%B0%EB%B3%B8%EB%B2%95%20&dt=20201211#undefined>(인출일: 2023년 10월 11일).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시행령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query=%EC%A0%80%EC%B6%9C%EC%82%B0%EA%B3%A0%EB%A0%B9%EC%82%AC%ED%9A%8C%20%EA%B8%B0%EB%B3%B8%EB%B2%95%20&dt=20201211#undefined>(인출일: 2023년 10월 11일).

첫만남이용권 사업의 추진 경과는 다음 <표 II-1-2>와 같다. 2020년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의 핵심과제로 발표되고, 2021년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이후 같은 해 8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고, 12월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1년 12월 14일 공포되었다.

<표 II-1-2> 첫만남이용권 추진 경과

일자	내용
'20.12.15.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핵심과제로 발표
'21.8.13.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21.8.24.	예비타당성조사 실시('21.4.~8.) 및 사업추진 타당성 확보
'21.8.30.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21.12.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21.12.14.	공포

출처: 보건복지부(2023). 2023년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 p. 3, 추진경과.

2. 첫만남이용권 신청 및 이용 절차

가. 첫만남이용권 신청대상 및 지급방식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1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전신청 기간을 거쳐 2022년 4월 1일 첫 지급되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2.4.1). 사전신청 기간 동안 현장 및 온라인으로 접수된 총 48,563건(2022. 3. 31. 기준)에 대해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가 지급되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2.4.1.).

지급 대상은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를 통해 정상적으로 주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다(보건복지부, 2023:4). 지급대상 범위에는 복수국적자 및 난민인정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된 아동도 모두 포함된다(보건복지부, 202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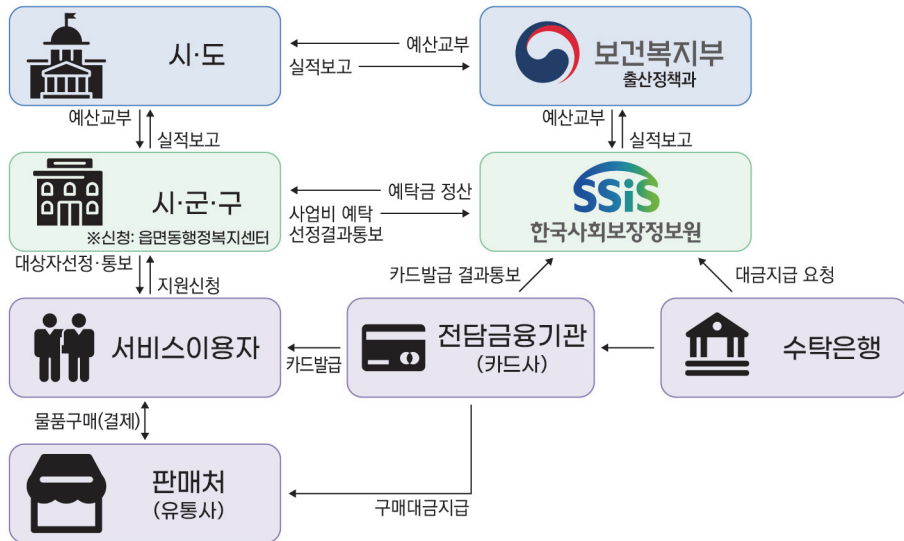
지원금액은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이 지급되며, 출생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아동 1인당 지급된다(보건복지부, 2023:4).

지급방식은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인 바우처 형태가 원칙이며,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를 받는 아동은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이 있다(보건복지부, 2023:5). 사용 기한은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이며, 미사용시 자동소멸된다(보건복지부, 2023:5). 사용 범위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 목적이므로,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 사용이 되고, 온라인 구매도 가능해서 사용 범위가 넓은 편이다(보건복지부, 2023:6).

나. 첫만남이용권 추진체계 및 이용 절차

첫만남이용권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는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시·도에 예산을 교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보건복지부, 2023:7). 시·도에서는 보건복지부에 받은 예산을 시·군·구에 사업비를 교부하고, 시·군·구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사업비를 예탁하게 된다(보건복지부, 2023:7). 사회보장정보원은 예탁금을 받아 예탁금을 관리·운영하고, 카드사와 바우처 비용 정산, 대상자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보건복지부, 2023:7).

[그림 II-2-1] 첫만남이용권 사업 추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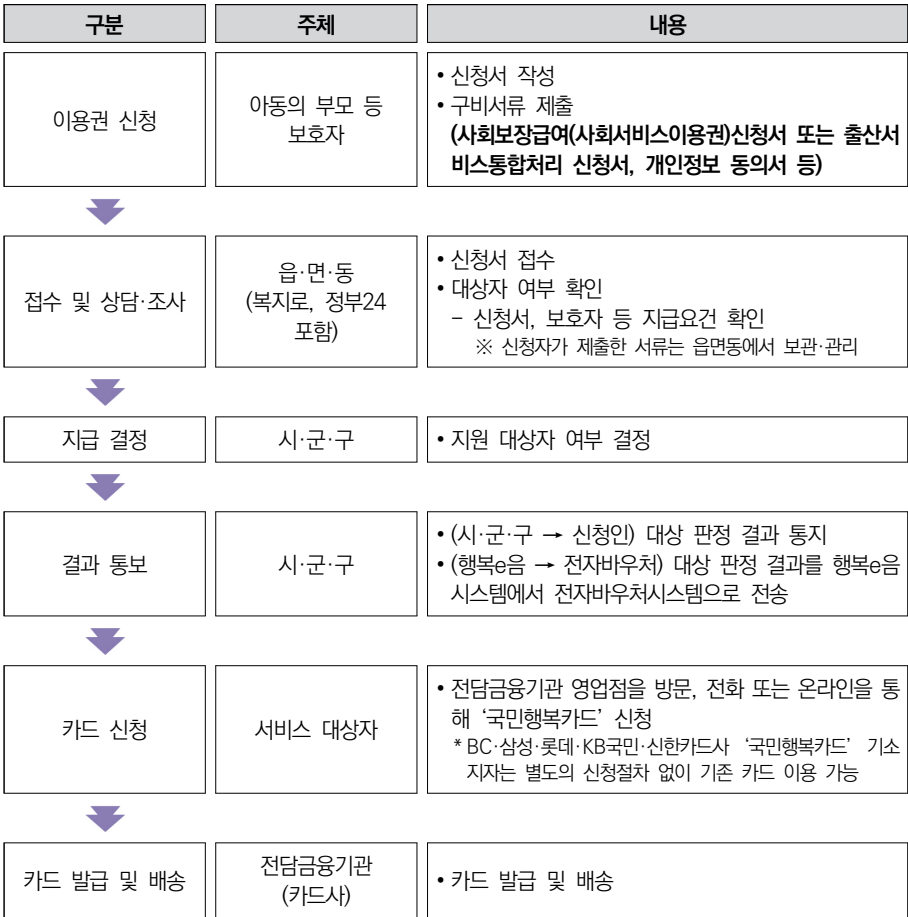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2023). 2023년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 p. 6, 사업추진체계(시군구).

첫만남이용권 신청은 온·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신청은 아동 보호자 누구나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내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접수를 하거나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23:8). 신청 후 지원 대상 판정 결과는 시·군·구를 통해 신청자에게 전달해 주거나 행복e음 시스템에서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전송을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3:8). 신청자는 전담금융기관을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3:8).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사용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3:5).

한편, 2023년 첫만남이용권 사업 중 일부 내용이 신설 및 변경되었다. 가령, 신설된 내용으로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를 지급대상 추가, 오납예탁금 출금 신청 안내 등이다(보건복지부, 2023년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 변경된 내용으로는 종료일 명확화, 결제 불가 내용 추가(세금 및 공과금 추가), 대리인도 신청 가능, 바우처 잔액관리는 카드사에서 확인, 부분 취소 가능사항 안내 등등이다(보건복지부, 2023년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 관련해서 더 상세한 내용은 『2023년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책자를 참고하길 바란다.

[그림 II-2-3] 첫만남이용권 신청 절차



출처: 보건복지부(2023). 2023년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 p. 8, 첫만남이용권 업무 흐름도.

III

첫만남이용권 이용 실태 및 만족도

- 01 응답자 및 자녀 특성
- 02 첫만남이용권 인지 및 신청 현황
- 03 첫만남이용권 이용 실태
- 04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 05 첫만남이용권과 추가출산 계획 등

Ⅲ. 첫만남이용권 이용 실태 및 만족도

이 장에서는 2023년도에 첫만남이용권을 소진한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면담조사 내용을 실었다. 첫만남이용권 관련한 전반적인 이용 실태 등을 분석하고 첫만남이용권의 만족도 및 첫만남이용권이 추가출산 계획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파악하였다.

1. 응답자 및 자녀 특성

가. 응답자 특성

2023년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보호자)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23.6%, 여성이 76.4% 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76.1%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15.3%, 20대가 8.6%이었다. 권역별로는 경기도 거주자가 30.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서울/인천 20.4%, 경남지역 13.7% 순이었다. 자녀수는 2명이 55.3%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1명이 27.1%, 3명 이상이 17.7%이었다. 월 가구소득은 300만원 미만인 26.2%, 300만원-400만원 미만인 25.7%로 비슷하였다. 500만원-700만원 미만은 22.7%, 800만원 이상은 6.5%이었다.

맞벌이 여부를 살펴본 결과, 외벌이가 52.0%로 절반을 약간 넘었으며, 맞벌이는 44.8%이었다. 응답자의 최종 학력은 4년제 졸업이 45.9%, 전문대졸은 26.3% 순이었다.

〈표 Ⅲ-1-1〉 응답자(보호자) 특성

전체		비율	사례수
		100.0	(2000)
성별	남성	23.6	(472)
	여성	76.4	(1528)

전체		비율	사례수
		100.0	(2000)
연령	20대	8.6	(172)
	30대	76.1	(1522)
	40대	15.3	(306)
권역	서울/인천	20.4	(408)
	경기	30.3	(605)
	충청	11.6	(232)
	경북	9.7	(194)
	경남	13.7	(273)
	전라	9.0	(179)
	강원/제주	5.5	(109)
자녀수	1명	27.1	(541)
	2명	55.3	(1106)
	3명 이상	17.7	(353)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6.2	(523)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25.7	(51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9.0	(380)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22.7	(453)
	800만원 이상	6.5	(129)
맞벌이 여부	외벌이	52.0	(1040)
	맞벌이	44.8	(895)
	무직	3.3	(65)
최종학력	고졸 이하	17.1	(343)
	전문대 졸	26.3	(525)
	4년제 졸	45.9	(916)
	대학원 이상	10.8	(216)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임.

나. 첫만남이용권 해당 자녀 특성

2023년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보호자)의 첫만남이용권 해당 자녀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아가 51.7%, 여아가 52.1%이다⁶⁾. 해당 자녀의 출생순위는 둘째라는 응답이 47.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첫째가

6) 자녀 성별 결과는 다탈아 부모가 자녀의 성별을 중복으로 응답한 경우도 일부 포함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하다.

37.1%, 셋째가 11.7% 순이었다. 넷째 이상부터는 5% 미만이었다. 해당 자녀의 다테아 여부를 살펴본 결과, 다테아가 아닌 경우가 90.6%로 대다수였으며, 쌍생아는 8.9%, 세쌍둥이는 0.5%이었다.

〈표 III-1-2〉 첫만남이용권 해당 자녀특성

단위: %, (명)

구분		비율	사례수
		100.0	(2000)
성별	남아	51.7	(1035)
	여아	52.1	(1042)
출생순위	첫째	37.1	(742)
	둘째	47.9	(959)
	셋째	11.7	(233)
	넷째	2.5	(50)
	다섯째 이상	0.8	(16)
다태아 여부	다태아(쌍둥이) 아님	90.6	(1811)
	쌍둥이(쌍생아)	8.9	(178)
	세쌍둥이	0.5	(11)

주: 다테아의 경우 자녀 성별을 중복으로 응답함.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임.

2. 첫만남이용권 인지 및 신청 현황

가. 첫만남이용권 인지 시점⁷⁾

첫만남이용권 인지 시점은 임신 전 시점부터 출생아의 출생신고 시점(출생이후 1개월 이내)까지 구분하여 다섯 개의 응답지를 제시하였다. 첫만남이용권 인지 시점은 임신 전 또는 임신을 준비하는 시기에 49.8%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임신 중에 알게 된 경우도 46.4%로 높게 나타났다. 이외 응답으로 출산 직후 1.9%, 출생신고 시 1.6%, 출산 후 한 달 지나서 0.4%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95.9%) 임신 준비 또는 임신 중에 첫만남이용권을 인지하였다.

첫만남이용권 인지 시점은 자녀수와 맞벌이 여부, 최종 학력에서 유의미한 차이

7) 2022년 만족도 조사에는 첫만남이용권을 처음 실시하는 해이므로 인지 여부를 설문문항에 넣었는데, 그 결과, 99.8%로 높게 나와서 2023년에는 이 문항을 삭제함. 대신, 인지 시점을 묻는 문항을 신설함.

가 있었다. 자녀수의 경우 출생아를 포함하여 2명인 경우 임신 전 시점에 첫만남이용권을 알고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5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의 가구가 외벌이인 경우 임신 전부터 첫만남이용권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52.1%로 맞벌이(48.2%), 무직 (33.8%)에 비해 높았다.

〈표 Ⅲ-2-1〉 첫만남이용권 인지 시점

단위: %, (명)

	임신 전 (임신 준비시기)	임신 중	출산 직후	출생 신고 시	출산 후 한 달 지나서 (출생 신고 이전)	사례수
전체	49.8	46.4	1.9	1.6	0.4	100.0(2000)
연령						
20대	48.8	47.1	2.9	0.6	0.6	100.0(172)
30대	50.7	46.0	1.7	1.3	0.3	100.0(1522)
40대	45.8	48.0	2.0	3.6	0.7	100.0(306)
$\chi^2(df)$			13.069(8)			
자녀수						
1명	49.0	47.1	2.6	0.7	0.6	100.0(541)
2명	52.2	44.0	1.7	1.7	0.4	100.0(1106)
3명 이상	43.3	52.7	1.1	2.5	0.3	100.0(353)
$\chi^2(df)$			16.439(8)*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47.5	46.4	3.4	1.7	1.0	100.0(524)
300만원~400만원미만	50.2	46.9	1.6	1.4	0.0	100.0(514)
400만원~500만원미만	53.4	43.2	1.1	2.1	0.3	100.0(380)
500만원~700만원미만	50.8	45.7	1.5	1.5	0.4	100.0(453)
800만원 이상	42.6	56.6	0.0	0.8	0.0	100.0(129)
$\chi^2(df)$			26.263(16)			
맞벌이 여부						
외벌이	52.1	44.3	1.9	1.4	0.3	100.0(1039)
맞벌이	48.2	48.2	1.7	1.6	0.3	100.0(896)
무직	33.8	55.4	3.1	4.6	3.1	100.0(65)
$\chi^2(df)$			24.264(8)**			
최종학력						
고졸 이하	44.7	48.0	2.9	3.2	1.2	100.0(342)
전문대 졸	47.6	49.0	1.7	1.5	0.2	100.0(525)
4년제 졸	52.6	44.4	1.7	1.0	0.3	100.0(917)
대학원 이상	50.9	46.3	0.9	1.9	0.0	100.0(216)
$\chi^2(df)$			23.188(12)*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면담조사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임신 중에 ‘첫만남이용권’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출산 후에 인지한 경우는 한 사례도 없었다. 이는 ‘첫만남이용권’ 제도가 있어서 출산계획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대부분이 인터넷 검색(맘카페, 지자체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알게 되었고, 사례 6과 9처럼 산부인과에서 알게 된 경우 즉, 오프라인으로 알게 된 경우는 드물었다.

인터넷 검색하다가 임신했을 때 그 때 임신 출산 지원 신청하면서 그때 알았거든요. 아이 낳으면 첫만남 준다고(사례 2)

임신 중이었어요……전 그냥 핸드폰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유튜브였는지 아니면 그냥 인터넷이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사례 5)

처음 알게 된 건 산부인과에서 이제 그 산모수첩 줄 때 서류같은 것도 꽂아주잖아요. 어떤 것들이 혜택이 있는 지. 거기서 이제 처음 알았어요(사례 6).

저는 임신 중에 지자체 통해서 출산한 다음에 혜택 같은 거를 검색하다가 알게 됐어요(사례 7).

아내가 임신을 했을 때 나라에서 주는 게 뭐가 있는 지 인터넷을 확인해 봤는데 첫만남이용권도 주고 그 다음에 부모 급여나 육아수당인가 그것도 준다고 해서. 아기 낳을 때 자본(돈) 걱정이 많이 됐는데 나라가 여기에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 찾아봤어요(사례 8).

첫만남이용권은 (다녔던) 산부인과에 팸플릿이 있어서 그거 보고 알았어요(사례 9).

임신 중에 알았어요. 전에는 몰랐죠. 임신 육아에 관련된 네00 카페에 **홀릭이라고, 거기서 완전 확정되기 전부터 기사가 약간 이런 것이 생길 것 같더라는 뉴앙스로 기사들이 먼저 올라오잖아요. 그런 게 먼저 캡처돼서 돌아다녔어요(사례 10).

첫만남이용권은 아이 갖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유튜브로 이것 저것 찾아 보니까 알았어요. 유튜브 검색해서 임신 한 4~5개월 그쯤에 알았던 것 같아요(사례 11).

나. 첫만남이용권 신청자 및 신청방법

1) 신청자

첫만남이용권의 신청자는 자녀의 어머니 61.6%, 자녀의 아버지 38.4%로 주로 자녀의 부모 중에 한 명이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자녀의 조부모 신청은 0.1%에 불과하였다. 첫만남이용권 신청자는 응답자의 자녀수, 맞벌이 여

부, 최종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자녀의 어머니가 신청하는 비율이 아버지에 비해 높았다. 특히 이러한 특성은 응답자가 무직인 경우 자녀의 어머니가 신청한 비율이 84.6%로 외벌이 (58.2%), 맞벌이 (63.7%)에 비해 높았다.

〈표 III-2-2〉 첫만남이용권 신청자

단위: %, (명)				
구분	자녀의 어머니	자녀의 아버지	자녀의 조부모	사례수
전체	61.6	38.4	0.1	100.0(2000)
연령				
20대	61.6	37.8	0.6	100.0(172)
30대	61.6	38.3	0.1	100.0(1522)
40대	61.1	38.9	0.0	100.0(306)
$\chi^2(df)$		4.52(4)		
자녀수				
1명	65.1	34.9	0.0	100.0(541)
2명	57.9	42.0	0.2	100.0(1106)
3명 이상	67.7	32.3	0.0	100.0(353)
$\chi^2(df)$		16.078(4)**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63.0	36.8	0.2	100.0(524)
300만원~400만원미만	58.8	41.1	0.2	100.0(514)
400만원~500만원미만	61.8	38.2	0.0	100.0(380)
500만원~700만원미만	63.1	36.9	0.0	100.0(453)
800만원 이상	60.5	39.5	0.0	100.0(129)
$\chi^2(df)$		4.498(8)		
맞벌이 여부				
외벌이	58.2	41.7	0.1	100.0(1039)
맞벌이	63.7	36.2	0.1	100.0(896)
무직	84.6	15.4	0.0	100.0(65)
$\chi^2(df)$		21.303(4)***		
최종학력				
고졸이하	66.4	33.0	0.6	100.0(342)
전문대졸	60.8	39.2	0.0	100.0(525)
4년제졸	60.1	39.9	0.0	100.0(917)
대학원 이상	62.0	38.0	0.0	100.0(216)
$\chi^2(df)$		14.583(6)*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2) 신청방법

첫만남이용권 신청은 자녀를 출산한 후 출생신고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출생신고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일부지만 온라인으로 출생등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병원도 있다.

따라서 출생신고를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서 동시에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하는 방문 신청이 69.9%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온라인 신청도 30.2%로 전체 신청의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2022년의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은 방문신청이 65.9%로 2023년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표 III-2-3 참조).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은 응답자의 권역(지역)과 자녀수, 월 평균 가구소득, 맞벌이 여부, 최종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권역의 경우 서울의 방문 신청은 59.3%인데 반해 강원/제주 지역은 76.1%로 대략 17%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또한 자녀수가 많을수록 온라인 신청보다는 방문신청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온라인 신청 비율이 더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표 III-2-3〉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단위: %, (명)

구분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	사례수
전체	69.9	30.2	100.0(2000)
연령			
20대	73.3	26.7	100.0(172)
30대	69.0	31.0	100.0(1522)
40대	72.2	27.8	100.0(306)
$\chi^2(df)$	2.302(2)		
권역			
서울/인천	59.3	40.7	100.0(408)
경기	68.9	31.1	100.0(605)
충청	79.3	20.7	100.0(232)
경북	70.1	29.9	100.0(194)
경남	76.6	23.4	100.0(273)
전라	70.4	29.6	100.0(179)
강원/제주	76.1	23.9	100.0(109)
$\chi^2(df)$	39.526(6)***		

구분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	사례수
자녀수			
1명	60.3	39.7	100.0(541)
2명	73.0	27.0	100.0(1106)
3명 이상	74.8	25.2	100.0(353)
$\chi^2(df)$	32.816(2)***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72.9	27.1	100.0(524)
300만원~400만원미만	72.0	28.0	100.0(514)
400만원~500만원미만	70.5	29.5	100.0(380)
500만원~700만원미만	65.6	34.4	100.0(453)
800만원 이상	62.0	38.0	100.0(129)
$\chi^2(df)$	11.223(4)*		
맞벌이 여부			
외벌이	73.4	26.6	100.0(1039)
맞벌이	65.0	35.0	100.0(896)
무직	80.0	20.0	100.0(65)
$\chi^2(df)$	19.717(2)***		
최종학력			
고졸이하	75.1	24.9	100.0(342)
전문대졸	73.3	26.7	100.0(525)
4년제졸	67.3	32.7	100.0(917)
대학원이상	63.9	36.1	100.0(216)
$\chi^2(df)$	14.09(3)**		
2022년	65.9	33.8	(2000)

주: 2022년 수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조사(미간행) 결과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면담조사에서도 첫만남이용권 신청자는 부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를 한 후에 발급되므로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 부인 대신에 배우자(남편)가 신청하였다. 신청방법은 설문조사 결과와 동일하게 배우자가 주민센터(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첫만남이용권을 같이 신청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었다.

저는 제가 주민센터 가서 출생신고하면서 제가 했는데 저는 와이프가 어차피 자주 쓸 거라서 와이프 이름으로 계좌로 해가지고 신청했어요(사례 3).

저도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하면서 아내 이름으로 신청했습니다(사례 1).

저는 남편이 출생신고하면서 그 때 같이 동사무소에서 (첫만남이용권 신청을) 해 준 걸고 있고 있어요(사례5).

저도 신랑이 주민센터 가서 출생신고 하면서 같이 신청을 했어요(사례 7).

남편이 읍사무소가서 신청했어요. 복지로 어플에서도 됐던 것 같은데 저는 오프라인에서 했어요(사례 10).

신랑이 제가 조리원에 있는 동안 가서 출생 신고하면서 그냥 한 번에 다 읍사무소 신청하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사례 11).

일부이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례도 면담조사에서 나왔다. 사례 6은 출산한 산부인과에서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면서 동시에 첫만남 이용권을 신청하였다. 사례 9도 아내가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 “복지로” 어플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였다.

저희 부부가 같이 출생신고를 정부24 들어가서 했거든요. 병원에서 서류 바로 거기로 넣어 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따로 로그인해가지고 진행 등본 입력하고 하는 거 하면 되거든요. 공인인증서 그것만 입력하면 돼요. 동시에 연계해서 (첫만남이용권 신청)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사례 6).

출산하고 아마 산후조리원에서 신청을 했을 거예요.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복지로’로요. 출생신고는 주민센터가서 했구요. 거기서 안내는 받았던 것 같아요(사례 9).

3) 주 이용자

첫만남이용권을 주로 누가 이용하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자녀의 어머니가 94.5%로 대부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의 아버지(5.1%)를 포함하여 자녀의 조부모 및 다른 가족들의 이용 비율은 매우 낮았다. 첫만남이용권 주요 이용 가족에 대한 분포는 자녀수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자녀의 아버지 이용정도는 자녀1명 (6.8%), 자녀 2명 (4.6%), 자녀 3명 이상 (3.7%)로 자녀수가 많을수록 아버지가 이용하는 경우가 줄었다.

〈표 III-2-4〉 첫만남이용권 주요 이용자

단위: %, (명)

구분	자녀의 어머니	자녀의 아버지	자녀의 조부모	기타	사례수
전체	94.5	5.1	0.1	0.5	100.0(2000)
연령					
20대	93.6	5.2	0.0	1.2	100.0(172)
30대	94.6	4.9	0.1	0.3	100.0(1522)
40대	94.1	5.6	0.0	0.3	100.0(306)
$\chi^2(df)$		5.657(10)			
자녀 수					
1명	92.8	6.8	0.0	0.4	100.0(541)
2명	95.1	4.6	0.1	0.2	100.0(1106)
3명 이상	94.9	3.7	0.0	1.4	100.0(353)
$\chi^2(df)$		28.171(1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94.1	5.5	0.2	0.2	100.0(524)
300만원~400만원미만	93.0	6.2	0.0	0.8	100.0(514)
400만원~500만원미만	95.3	4.5	0.0	0.3	100.0(380)
500만원~700만원미만	95.4	4.0	0.0	0.6	100.0(453)
800만원 이상	96.1	3.9	0.0	0.0	100.0(129)
$\chi^2(df)$		16.648(20)			
맞벌이 여부					
외벌이	93.6	6.0	0.0	0.4	100.0(1039)
맞벌이	95.4	3.9	0.1	0.5	100.0(896)
무직	93.8	6.2	0.0	0.0	100.0(65)
$\chi^2(df)$		6.458(10)			
최종학력					
고졸이하	93.9	5.6	0.3	0.3	100.0(342)
전문대졸	95.6	4.0	0.0	0.4	100.0(525)
4년제졸	94.2	5.3	0.0	0.4	100.0(917)
대학원이상	93.5	5.6	0.0	1.0	100.0(216)
$\chi^2(df)$		11.583(15)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임.

** $p < .01$

면담조사에서도 대부분이 자녀의 어머니가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와이프 명의 카드다 보니까 처음에는 와이프가 그냥 거의 다 쓴 것 같아요(사례 1)

100% 와이프가 썼어요(사례 3).

저는 제가 사용했어요(사례 5).

첫만남이용권은 아내가 거의 썼어요. 저는 아예 카드를 잘 보지도 못했어요(사례 9).

남편이 신청했지만 제가 사용했어요. 와이프 출산하는 거 보고 남편이 쓰고 싶은 생각 쏙 들어가지 않을까요? 힘들게 아기 낳았는데……(사례 10)

제가 썼어요. 남편이 어차피 그냥 쓰라고. 아무래도 아기 거 이것 저것 살게 많으니까 첫째다 보니까 아무 것도 없으니까요(사례 11).

남편이 사용하는 경우는 사례 4뿐이었다.

거의 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저귀 같은 거 사는 등 제가 일단 쓰고 있어요(사례 4).

3. 첫만남이용권 이용 실태

첫만남이용권 사용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첫만남이용권 사용처별 비중을 조사하고 각 사용처별로 사용대상이 해당자녀인지 해당자녀 이외 응답자 본인을 포함한 가족구성원인지를 확인하였다.

가.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2023년 첫만남이용권의 주요 사용처는 산후조리원이 48.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육아용품(15.5%), 의료비(14.6%), 식·음료비(13.7%), 생활용품(5.3%)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일부 사용처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권역, 자녀수, 월평균 가구소득, 최종학력 등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녀수에 따라 산후조리원 이용률에 큰 차이가 있었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비중이 자녀 1명 67.6%, 자녀 2명 43.6%, 자녀 3명 34.0%로 자녀수가 많을수록 산후조리원 비용

으로 지출하는 비중이 줄어든 반면, 육아용품과 식·음료비의 지출 비중은 자녀수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권역별로도 서울 및 수도권에서 산후조리원 이용비율이 절반을 상회한 반면, 경남, 전라, 강원/제주는 절반 이하로 사용하였고 대신, 육아용품, 식·음료비 사용비중이 높아서 지역에 따라 사용처가 다를 수 있었다.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고소득 가구일수록 산후조리원에 사용한 비율이 높았고, 식·음료비 사용 비율이 낮았다. 산후조리원을 2주 사용하는 비용이 평균 300만원 이상이므로(경향신문, 2023.08.27.) 저소득가구가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바우처를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소진한다 하더라도 개인이 추가로 내야 하는 금액이 적지 않으므로 산후조리원 이용이 쉽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표 III-3-1 참조).

그러나 본 면담조사의 사례 8은 월소득이 가장 낮았으나, 산후조리원에 첫만남이용권을 전액 다 사용했는데, 첫아이여서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희망했고, 산후조리원 비용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서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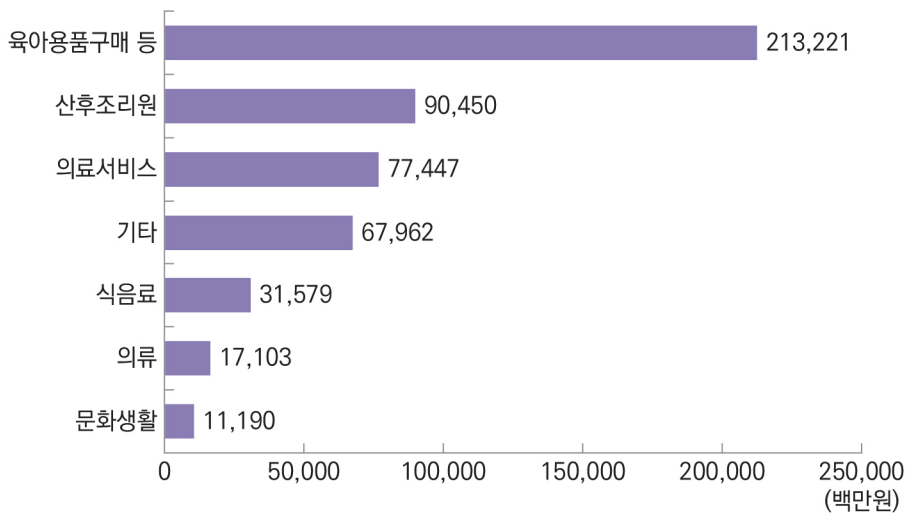
산후조리원이 28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은 그걸로 굶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했어요. 와이프가 산후조리원 가기를 위해서 첫만남이용권이 없었더라도 그동안 모은 거 써서라도 갔었을 거예요(사례 8).

2023년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조사에서는 사용처를 세분화하여 문화생활비, 서비스비용, 교육비, 교통비와 기타 항목을 추가하여 응답분포를 살펴보았다. 일부 변인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앞서 언급한 산후조리원, 육아용품, 의료비, 식·음료비, 생활용품에 비해 사용률이 매우 낮았다(표 III-3-1 참조).

2022년 첫만남이용권 만족도조사에서도 산후조리원에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30.7%), 육아용품(26.8%), 의료비(18.3%), 식·간식(12.7%) 순으로 나타나서 2023년도 조사와 거의 유사하였다(표 III-3-1 참조). 다만, 산후조리원의 이용 비중이 18% 가까이 늘었고, 육아용품을 구매는 10% 이상 감소하는 등의 지출 비중의 차이를 보였다.

한편, 2022년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첫만남이용권의 1년간 사용 금액 금액을 분석한 결과, 육아용품 구매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산후조리원, 의료비 순으로 나와서 설문조사와 차이를 보였다(그림 III-3-1 참조).

[그림 III-3-1] 첫만남이용권 1년간 업종별 사용 금액(2022.4.1.~2023.3.31.)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보도자료(2023.4.11.). “자녀 양육 지원 ‘첫만남이용권’ 사업 1년, 만족도 높아”, 홈페이지 http://www.ssis.or.kr/lay1/bbs/S1T67C101/B/101/view.do?article_seq=125064(인출일: 2023년 10월 11일).

〈표 III-3-1〉 첫만남이용권 사용자 현황

단위: %, (명)										
	육아용품 (옷, 기저귀, 장난감 등)	식·음료비 (분유, 이유식, 식비 등)	의료비 (병원, 약국 등)	신혼 조리원	생활용품 (육아용품 제외)	문화생활비 (영화, 연극, 여행, 레저)	서비스비용 (개인관리 목적의 스파·초센터, 해어샴, 마사지 등)	교육비 (교재·교구 구입, 온라인 교육, 학원 수강 등)	교통비 (주유비, 대중 교통비 등)	기타 (무응답 포함)
전체	15.5	13.7	14.6	48.4	5.3	0.1	1.2	0.5	0.5	100.0(2000)
연령										
20대	20.8	11.7	10.3	47.7	7.1	0.6	0.3	0.3	0.7	100.0(172)
30대	15.1	13.5	14.4	49.0	5.3	0.1	1.3	0.4	0.5	100.0(1522)
40대	14.2	15.6	17.7	45.4	4.2	0.1	1.1	0.8	0.6	100.0(306)
F	4.734**	1.990	4.107*	0.813	2.384	9.173***	1.209	1.369	0.677	0.048
지역										
서울/인천	15.4	11.7	14.1	51.3	4.5	0.0	1.6	0.4	0.6	(408)
경기	14.0	12.1	12.4	54.6	4.5	0.1	1.0	0.5	0.4	(605)
충청	13.4	14.1	13.4	50.2	5.9	0.2	2.0	0.0	0.7	(232)
경북	13.1	13.4	15.9	49.0	6.3	0.1	0.9	0.6	0.4	(194)
경남	15.2	14.3	17.1	45.2	5.5	0.4	1.0	0.8	0.5	(273)
전라	21.1	17.5	20.9	31.4	5.9	0.0	1.1	0.7	0.6	(179)
강원/제주	23.7	21.1	11.3	33.8	7.7	0.3	0.6	0.0	0.6	(109)
F	4.702***	4.367***	3.015**	8.400***	1.349	2.113*	0.753	0.948	0.572	1.063
자녀수										
1명	7.9	4.6	16.7	67.6	1.8	0.1	0.7	0.1	0.2	(541)
2명	17.6	15.5	13.9	43.6	6.2	0.1	1.5	0.5	0.7	(1106)
3명 이상	20.4	21.8	13.2	34.0	7.6	0.1	1.0	0.8	0.7	(353)
F	38.767***	84.590***	2.444	75.624***	24.134***	0.212	1.734	3.146*	5.449**	0.520

	육아용품 (옷, 기저귀, 장난감 등)	식·음료비 (분유, 아유식, 식비 등)	의료비 (병원, 약국 등)	신후 조리원	생활용품 (육아용품 제외)	문화생활비 (영화, 연극, 여행, 레저)	서비스비용 (개인관리 목적의 스파·호터, 헤어샵, 마사지 등)	교육비 (교재·교구 구입, 온라인 교육, 학원 수강 등)	교통비 (주유비, 대중 교통비 등)	기타 (무응답 포함)	사례수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17.3	15.5	16.0	42.0	6.4	0.3	1.2	0.6	0.5	0.2	(524)
300만원~400만원미만	15.0	15.2	13.5	48.6	5.4	0.1	1.0	0.3	0.5	0.5	(514)
400만원~500만원미만	17.2	12.8	14.5	47.3	5.4	0.1	0.6	0.9	0.6	0.6	(380)
500만원~700만원미만	14.5	12.5	13.2	53.1	4.2	0.0	1.5	0.1	0.6	0.4	(453)
800만원 이상	8.5	6.7	18.0	59.9	3.5	0.2	2.7	0.2	0.1	0.2	(129)
<i>F</i>	4.123**	5.576***	1.331	5.763***	2.114	2.065	1.689	2.120	0.800	0.547	
맞벌이 여부											
외벌이	16.3	14.6	13.9	47.5	5.3	0.1	1.0	0.4	0.6	0.2	(1039)
맞벌이	14.2	12.5	15.1	50.4	5.1	0.1	1.5	0.5	0.4	0.4	(896)
무직	20.0	15.0	17.0	35.3	7.0	0.9	1.0	0.7	1.1	2.1	(65)
<i>F</i>	2.909	2.483	0.690	3.651*	0.616	9.097***	0.693	0.100	1.788	5.303**	
최종학력											
고졸이하	20.2	16.7	13.8	38.7	7.5	0.5	0.6	0.8	0.5	0.6	(342)
전문대졸	14.7	15.0	14.0	48.8	5.5	0.0	0.7	0.5	0.5	0.2	(525)
4년제졸	14.6	12.4	15.0	50.2	4.8	0.1	1.8	0.4	0.5	0.4	(917)
대학원이상	13.5	11.1	15.3	54.7	3.3	0.0	1.0	0.1	0.6	0.4	(216)
<i>F</i>	5.446***	5.143**	0.284	6.881***	4.763**	8.747***	2.662*	1.367	0.045	0.484	
2022년	26.8	12.7	18.3	30.7	10.0	-	-	-	-	1.3	(20000)

주: 2022년 수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조사(미간행) 결과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나. 첫만남이용권 사용처별 사용 대상

『2023년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에는 바우처 이용가능 업체(물품)로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의복, 음식료품, 가구)”(보건복지부, 2023: 35)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첫만남이용권은 유희·사행·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 제외) 등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사용이 가능하므로(보건복지부, 2023: 35) 사용범위가 넓다. 즉, 첫만남이용권은 해당 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물품 외에도 부모 또는 다른 가족을 위해서도 사용가능하다.

첫만남이용권을 누구를 위해 주로 사용했는지를 항목별로 알아보았다. 산후조리원을 제외하고 첫만남이용권으로 주로 사용한 육아용품, 식음료비, 의료비(이상 3개 항목을 합치면 43.8%임. 표 III-2-5 참조)는 해당 자녀를 위해 사용했다는 응답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것은 가장 많이 사용한 산후조리원은 해당 자녀와 가족(본인포함) 모두를 위한 것으로 응답했다는 점이다. 생활용품(육아용품 제외), 영화나 연극 등의 문화생활, 이미용 등의 서비스 이용, 교통비 등의 항목은 가족(본인 포함)을 위해 사용했다는 응답자수가 더 많았다. 그러나 이 응답자수는 설문조사 참여자 2,000명 중에서 많지 않았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첫만남이용권은 대부분 해당 자녀와 산모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다음으로는 가족의 생활용품 구입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⁸⁾ 기타 응답으로 “가구/가전제품”(6명), “주거 관련(이사, 집수리 등)”(2명), “자동차 관련(신차구입, 자동차 관련 기기 구입 등)”(3명)이 나왔다.

〈표 III-3-2〉 첫만남이용권 사용처별 사용대상(중복응답)

단위: %, (명)

항목	사용대상		사례수
	해당 자녀	가족 (본인 포함)	
육아용품(옷, 기저귀, 장난감 등)	93.6	15.0	(838)
식음료비(분유, 이유식, 식비 등)	76.6	46.4	(761)
의료비(병원, 약국 등)	76.3	48.4	(744)
산후조리원	68.7	62.5	(1132)

8) 항목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3. 부표 1~8 참조함.

항목	사용대상		사례수
	해당 자녀	가족 (본인 포함)	
교육비(교재·교구 구입, 온라인 교육, 학원 수강 등)	64.9	54.1	(37)
생활용품(육아용품 제외)	54.6	78.1	(392)
문화생활비(영화, 연극, 여행 등)	40.9	77.3	(22)
서비스비용((개인관리 목적의 스포츠센터, 헤어샵, 마사지 등)	10.3	92.6	(68)
교통비(주유비, 대중교통비 등)	29.4	94.1	(85)
기타	61.5	65.4	(26)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임.

본 면담조사에서 산후조리원으로 전액을 사용한 사례는 1, 5, 8 등 3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산후조리원에 사용을 자녀를 위한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나머지 8명은 주로 육아용품, 식음료비, 생활용품, 주유비, 병원, 배달음식, 외식 등 다양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 외에 자녀에게 100% 사용한 경우는 사례 3, 10 등 2명이며 나머지 6명은 자녀와 가족(본인포함)을 위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산후조리원을 제외한 자녀를 위해 100%로 사용한 사례 3, 10의 사용처는 다음과 같다.

저는 아이 기저귀랑 분유 아이 쪽쪽이라든가 그런 용품, 그리고 나머지는 병원비로 썼습니다. 아이 처음에 예방접종 그런 거로 거의 다 썼어요(사례3).

유모차 금액이 제일 크게 들어갔어요. 150만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BCG 접종을 무료항목이 있는데 지원금이 나왔으니까 유료 항목을 뺀주고 싶어서 결제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인터넷으로 제가 막 아기에 관련된 물건들이나 집에서 먹을 것을 샀어요(사례 10)

사례7은 자녀에게 50%, 가족에게 50% 사용한 경우인데 사용처는 다음과 같다.

저는 마트나 아니면 온라인 몰에서도 사용이 되게 잘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생활용품 등을 많이 구입했었어요. 그리고 보통 기저귀나 아니면 이유식 의자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구입했어요(사례 7).

〈표 III-3-3〉 본 면담조사 참여자들 사용처

사례	주 사용처	사용대상	
		자녀	가족(본인포함)
1	산후조리원 200만원	자녀 100%	-
2	육아용품 50만원, 마트 100만원, 외식 50만원	자녀 30%	가족 70%
3	육아용품 100만원, 병원비 100만원	자녀 100%	-
4	생활용품 30만원(사용 중)	자녀 50%	가족 50%
5	산후조리원 200만원	자녀 100%	-
6	마트 150만원, 주유비 50만원	자녀 35%	가족 65%
7	육아용품 100만원, 식품 50만원, 생활용품 50만원	자녀 50%	가족 50%
8	산후조리원 200만원	자녀 100%	-
9	육아용품 150만원, 배달음식 50만원	자녀 70%	가족 30%
10	육아용품 150만원, 마트 40만원, 병원 10만원	자녀 100%	-
11	생활용품 70만원, 육아용품 130만원	자녀 70%	가족 30%

주: 1) 면담참여자자 직접 작성한 것임.

2) 자녀는 첫만남이용권 해당 자녀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임.

4.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가. 첫만남이용권 신청 및 이용 편리성

첫만남이용권의 신청 및 이용에 관한 편리성은 신청방법, 이용가능 업체/물품, 이용 기간, 전반적 만족도로 세분화하여 5점 척도로 설문하였다.⁹⁾ 신청 방법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평균 4.4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용 기간(4.40점), 이용 가능 업체/물품(4.36점)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 만족도는 30대, 자녀수 2명(이상), 맞벌이 가정, 고학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조사에 비교하면 전반적 만족도는 4.47점으로 2022년의 4.79점보다 다소 하락하였다(표 III-4-1 참조). 2022년에는 신청방법, 이용가능 업체/물품, 이용기간 3개 항목을 합쳐서 ‘이용의 편리성’으로 알아본 결과, 4.72점으로 나왔었는데(표 III-4-1 참조) 2023년에는 이 수치보다 높게 나온 세부 항목은 없었다.

9) 2022년에는 이 3가지를 합쳐서 “이용의 편리성”으로 설문함. 2023년 설문조사의 세부 항목별 결과는 부록을 참조바람.

〈표 III-4-1〉 첫만남이용권 신청/이용 편리성 및 전반적 만족도¹⁰⁾

단위: 점, (명)

구분	신청방법	이용 가능 업체/물품	이용기간	전반적 만족도	사례수
전체	4.49	4.36	4.40	4.47	(2000)
연령					
20대	4.50	4.36	4.31	4.46	(172)
30대	4.50	4.38	4.42	4.48	(1522)
40대	4.41	4.25	4.32	4.42	(306)
F	1.522	2.723	2.064	0.616	
자녀수					
1명	4.43	4.27	4.29	4.38	(541)
2명	4.55	4.41	4.47	4.54	(1106)
3명 이상	4.37	4.32	4.35	4.42	(353)
F	8.020***	4.391*	6.628**	6.63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4.42	4.27	4.28	4.40	(524)
300만원~400만원미만	4.49	4.32	4.39	4.45	(514)
400만원~500만원미만	4.55	4.44	4.47	4.53	(380)
500만원~700만원미만	4.48	4.41	4.45	4.51	(453)
800만원 이상	4.56	4.45	4.51	4.53	(129)
F	1.688	2.878*	3.081*	1.814	
맞벌이 여부					
외벌이	4.45	4.31	4.34	4.41	(1039)
맞벌이	4.55	4.43	4.48	4.56	(896)
무직	4.26	4.15	4.18	4.32	(65)
F	6.419**	6.246**	7.024***	8.101***	
최종 학력					
고졸 이하	4.47	4.25	4.26	4.37	(342)
전문대 졸	4.43	4.30	4.32	4.40	(525)
4년제 졸	4.51	4.40	4.45	4.52	(917)
대학원 이상	4.55	4.47	4.58	4.62	(216)
F	1.526	3.913**	6.928***	5.972***	
2022년		4.72		4.79	(2000)

주: 1) 2022년 수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조사(미간행) 결과임.

2) 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 5점 척도의 평균값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임.

10) 세부 항목별 결과는 부록 3. 부표 9~12 참조함.

면담조사에서도 신청방법, 이용가능 업체/물품, 이용기간 등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11사례 중에서 사례 5, 6, 11을 제외하고는 5점 척도 기준으로 5점 만점을 주었다.

〈표 III-4-2〉 본 면담조사 참여자들의 이용 만족도

사례	5점 척도	만족도 이유
1	5점	특별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바우처라 매우 좋음
2	5점	임신 초기에 돈 들 곳이 많은데 알차게 육아용품 및 조리원에서 알뜰하게 잘 썼고 금액이 적지 않아 만족함
3	5점	가족 구성원이 늘어남에 따라 생활비 증가 및 각종 육아용품 구매 비용 증가로 경제적 부담이 늘어났는데 이를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역할을 해줘서 매우 만족함
4	5점	편의성 즉시 사용 및 잔액 알림 등
5	3점	금액이 너무 적고 첫만남이용권으로 인해 지자체 지원금이 없어지거나 낮아졌기 때문임
6	4점	카드 결제시 첫만남이용권으로 결제되어 잔액 상관없이 쓸 수 있어서 좋았음.임산부 교통비 바우처가 남아있는경우 첫만남이용권이 먼저 결제되어 기간이 더 짧은 임산부 교통비를 쓰기 위해 첫만남이용권을 빠른 기간 내에 소비하게 됨
7	5점	사용처가 다양해서 좋음
8	5점	와이프 산후조리원 비용이 부담이었는데 첫만남이용권으로 큰 돈 안들어가고 산후 조리해서 편했음
9	5점	다른 바우처(지역 제한, 오프라인 등)에 비해 높은 사용처 신청의 편의성(온 오프라인 모두 가능), 적당한 금액(육아에 필요한 생필품 구매에 적당)
10	5점	육아용품을 준비하기 전까지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갈지는 몰랐었음, 살고 있는 동네 특성상 길이 좋지 않아 아기를 데리고 외출하려면 서스펜션이 좋은 유아차가 필요했는데 기본 100만 원부터 시작이라 나라에서 2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아기와 산책할 수 있는 유아차를 마음 편히 살 수 있게 해준 고마운 금액임.
11	4점	출산으로 인한 퇴직으로 수입이 줄어서 가계운영이 어려운데 도움이 됨.

주: 만족도 이유는 면담참여자 본인이 작성한 것임.

설문조사에서 자녀 2명 이상에서 만족도가 높았는데 면담조사에서는 자녀수와 상관없이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자녀가 3명인 사례7과 자녀가 2명인 사례8을 통해 이전 자녀로부터는 받지 못했던 첫만남이용권의 만족도가 높은 내용이다. 이용가능 업체/물품, 이용기간 등에 대해서도 만족한다고 했다.

가계부담 해소에 도움이 됐죠. 첫째, 둘째랑 비교했을 때는 200만원이 들어오네. 이러면서 이제 기분이 일단은 진짜 좋고, 그 다음에는 그래도 기저귀 값에서 200만원이 되는 거니까 좋죠……빨리 소진하는 게 좋겠다 생각했어요. 크게 크게 나가는 거는 저는 아니고 해서 기간 안에 못 쓰면 너무 아까우니까 빨리빨리 사용하자는 주의여서(사용기간을 제한한 것은 불만 없어요)(사례 7).

사실 제가 계획해서 임신을 못했는데 이런 정책이 있어서 엄청 감사했습니다. 저는 지금처럼 사용 기간 제한이 있는 게 더 낫기는 할 것 같아요. 사용처 제한도 힘들 것 같구요(사례 8).

그냥 저는 너무 많이 좋았어요. 너무 마음 편히 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사용처를 크게 제한하지 않다보니(사례 10).

나. 첫만남이용권 불만족 이유

첫만남이용권의 전반적 만족도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한 284명에 대해 중복 응답을 허용하여 불만족 이유를 알아보았다.

첫만남이용권 불만족 이유는 바우처 금액이 부족해서(77.1%)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바우처의 사용처 제한(32.7%), 자녀 출산 후에야 발급 받을 수 있어서(27.8%), 신청 후 바로 지급되지 않아서(25.7%),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해야 해서(1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불만족 이유인 ‘바우처 금액이 부족해서’를 응답한 집단을 살펴보면, 20대(87.5%), 자녀수 1명(80.2%), 월소득 300~400만원 미만(82.7%), 무직(93.3%), 전문대졸(79.4%)이 다른 집단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참고로 월소득 8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에서 기타 비율이 13.7%로 높게 나왔는데, 이는 응답자수가 적어서(15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것으로, 내용으로는 ‘바우처 금액에 맞춰 비용이 책정되어 있어서(조리원 등)’, ‘지역카드 연계 사용 서비스가 불편해서’ 등등의 의견이었다.

〈표 III-4-3〉 첫만남이용권 불만족 이유(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바우처 금액이 부족	바우처 사용처 제한	자녀 출산 후 발급 받을 수 있어서	신청 후 바로 지급되지 않아서	자녀 출생일로 부터 1년 이내 사용해야 해서	신청 방법이 어려워서 (온라인 신청 등)	기타	사례수
전체	77.1	32.7	27.8	25.7	16.9	1.8	1.5	(284)
연령								
20대	87.5	25.0	29.2	37.5	25.0	4.2	0.0	(24)
30대	75.3	30.7	28.8	25.6	17.2	1.9	1.4	(215)
40대	80.0	46.7	22.2	20.0	11.1	0.0	2.2	(45)

구분	바우처 금액이 부족	바우처 사용처 제한	자녀 출산 후 발급 받을 수 있어서	신청 후 바로 지급되지 않아서	자녀 출생일로 부터 1년 이내 사용해야 해서	신청 방법이 어려워서 (온라인 신청 등)	기타	사례수
자녀수								
1명	80.2	24.2	26.4	30.8	16.5	3.3	1.1	(91)
2명	75.4	34.3	32.1	23.9	19.4	0.7	2.2	(134)
3명 이상	76.3	42.4	20.3	22.0	11.9	1.7	0.0	(59)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73.6	39.6	27.5	28.6	17.6	3.3	1.1	(91)
300만원~400만원미만	82.7	25.9	29.6	28.4	18.5	0.0	1.2	(81)
400만원~500만원미만	82.2	35.6	22.2	15.6	8.9	2.2	0.0	(45)
500만원~700만원미만	73.1	30.8	32.7	23.1	19.2	0.0	0.0	(52)
800만원 이상	66.7	26.7	20.0	33.3	20.0	6.7	13.7	(15)
맞벌이 여부								
외벌이	77.9	34.9	29.7	24.4	16.3	1.7	1.7	(172)
맞벌이	73.2	29.9	20.6	24.7	16.5	2.1	1.0	(97)
무직	93.3	26.7	53.3	46.7	26.7	0.0	0.0	(15)
최종학력								
고졸이하	76.6	31.3	37.5	28.1	18.8	4.7	0.0	(64)
전문대졸	79.4	34.0	27.8	20.6	19.6	0.0	1.0	(97)
4년제졸	75.0	34.6	24.0	28.8	15.4	1.9	2.9	(104)
대학원이상	78.9	21.1	15.8	26.3	5.3	0.0	0.0	(19)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임.

면담조사에서는 대부분 5점으로 첫만남이용권 제도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나, 면담 일부에서 아쉬운 내용이 나왔다. 가령, 서울에서 지원하는 주유비 바우처제도가 있는데 동일 카드로 사용하다 보니, 첫만남이용권 바우처가 먼저 결제된 다거나(사례6), 첫만남이용권 제도가 생기면서 지자체의 출산장려금 제도가 없어 졌다고 했다(사례3).

이 바우처에서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안 나가겠지 하고 이제 사 먹은 것들이 다 바우처에서 나가요. 이 바우처를 조금 나를 위해서 쓰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쓰고 싶어서 아껴두고 싶 은데 그냥 커피 한 잔을 사 먹더라도 다 여기서 먼저 나가요(사례 6).

첫째 때는 출산장려금을 받았는데 첫만남이 생기면서 없어졌어요. 지자체에서 이야기해 준 거예요(사례 3).

면담조사에서는 첫만남이용권 신청 후, 바우처 금액 입금 시기가 조금씩 달랐지만 대부분 일주일 이내에 들어왔고 이에 대한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불만족한 경우는 없었다.

다. 첫만남이용권의 타 지원정책 대비 양육 부담 경감수준

첫만남이용권이 중앙정부 단위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육아지원정책들과 비교하여 출생초기 양육부담의 경감 수준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첫만남이용권이 타 지원정책과 비교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는 수준은 부모급여 4.38점, 임신출산의료비지원 4.36점, 아동수당 4.11점으로 집계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첫만남이용권의 도움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급여와 임신출산의료비지원과 비교해서 도움이 크다고 볼 수 있고, 아동수당보다는 상대적으로 도움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3개 정책들의 목적과 지급 기간, 지급 방식 등이 다르므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첫만남이용권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크고,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것으로 평가된다.

임신출산의료비지원보다 첫만남이용권이 더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20대, 자녀수 2명 집단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올해부터 지급되는 부모급여보다 첫만남이용권이 더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을 보면, 자녀수 2명 및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에서 첫만남이용권이 더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높았고,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022년 설문조사에서는 제도별이 아니라 통틀어서 물었는데 4.27점으로 집계되었다. 이로써 2022년보다 첫만남이용권이 타 정책들에 비해 도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4-4 참조).

〈표 III-4-4〉 첫만남이용권이 타 지원정책 대비 양육 부담 경감수준

단위: 점, (명)

구분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국민행복카드)	부모급여	아동수당	사례수
전체	4.36	4.38	4.11	(2000)
연령				
20대	4.41	4.35	4.22	(172)
30대	4.39	4.40	4.13	(1522)
40대	4.20	4.29	3.95	(306)
F	5.872**	1.925	4.766**	

구분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국민행복카드)	부모급여	아동수당	사례수
자녀수				
1명	4.31	4.28	4.04	(541)
2명	4.41	4.43	4.16	(1106)
3명 이상	4.28	4.35	4.07	(353)
F	4.426*	4.965**	2.669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4.40	4.47	4.20	(524)
300만원~400만원미만	4.33	4.38	4.08	(514)
400만원~500만원미만	4.42	4.42	4.18	(380)
500만원~700만원미만	4.33	4.28	4.02	(453)
800만원 이상	4.29	4.20	4.02	(129)
F	1.210	4.063**	2.540*	
맞벌이 여부				
외벌이	4.36	4.40	4.11	(1039)
맞벌이	4.36	4.36	4.11	(896)
무직	4.37	4.26	4.20	(65)
F	0.013	1.098	0.238	
최종학력				
고졸이하	4.33	4.40	4.16	(342)
전문대졸	4.30	4.41	4.10	(525)
4년제졸	4.39	4.33	4.09	(917)
대학원이상	4.44	4.46	4.13	(216)
F	1.925	1.688	0.346	
2022년		4.27		

주: 1) 2022년 수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조사(미간행) 결과임.
2) 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 5점 척도의 평균값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면담조사에서도 이상의 3개 정책을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첫만남이용권이 다양한 곳에서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은 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에 한정해서 사용해야 하고, 현금으로 들어오는 부모급여, 아동수당이 더 우위에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자녀를 일찍 어린이집에 보내면 부모급여로 실제로 들어오는 돈은 얼마 안 되고, 첫만남이용권이 받을 때 기분이 가장 좋았다고 했다. 첫만남이용권은 현금은 아니지만, 사용의 편리성으로 현금 지원정책 못지않게 부모들은 만족하고 있었다.

임신출산의료비지원은 무조건 약국 아니면 병원 이런 요양기관에서만 사용하는 거고 첫만남은 다 되는 거니까……사용하기도 편하고(사례 5).

부모급여가 월 70만원이라 만족도가 센 것 같아요. 현금으로 들어오고, 그런데 부모급여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일찍 보내게 되면은 어린이집 비용으로 나가니까 저한테 들어오는 돈은 거의 없어요. 금액적으로는 아동수당이지만 기분 좋은 거는 첫만남(이용권)이에요(사례 6).

지금 간담회(면담조사)라서가 아니고 첫만남이용권이 가장 편하고 신청도 사실 간편했고, 사용처가 너무 제한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사례 9).

제일 좋았던 게 부모급여구요. 그 다음에 이거 첫만남 그 다음에 임신출산의료지원 그 다음이 아동수당같아요(사례 11).

5. 첫만남이용권과 추가출산 계획 등

가. 추가출산 계획 여부

향후 추가 출산에 대한 질문에서 0명(출산 계획없음)이 약 7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앞으로 1명을 더 출산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6.0%로 30대, 40대에 비해 좀 더 많았으나, 0명 응답이 절반이 넘는 57.0%로 나왔다. 자녀수가 1명인 경우, 1명을 더 낳겠다는 응답이 47.0%로 비교적 높게 나왔다. 현재 자녀수가 2명 이상인 경우는 0명 응답이 절대적으로 많았다.

월평균가구소득별로는 800만원 이상 고소득가정에서 1명을 더 낳을 계획이라는 응답이 26.4%로 가장 많았으나, 300만원 미만의 저소득 가정에서도 앞으로 2명 이상 낳겠다는 응답이 약 7%(1명 5.3%+1명 1.0%+4명 이상 0.6%)로 가장 많았다. 정리하면 반드시 소득에 비례하지 않지만, 소득이 높으면 현재 자녀 포함에서 2명까지는 낳을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300만원 미만의 저소득 가정은 추가출산 계획은 없으나, 2명 이상의 다자녀출산 계획 의사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볼 수 있다.

외벌이 가정(77.1%)이 맞벌이 가정(74.0%)보다 0명의 응답이 높게 나왔다. 외벌이 가정이 맞벌이 가정에 비해 경제력(가구소득)이 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으로 추가 출산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짐작된다. 맞벌이 가정에서 “1명 출산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23.0%로 가장 높았는데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본 면담조사에서 2명 이상 자녀를 출

산한 사례들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직장에 다니는 경우들이었다. 자녀 3명을 출산한 사례 3은 공무원이며 현재 자녀는 1명인 사례 2는 부인이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을 했는데 둘째를 희망한다고 했다. 즉, 육아휴직제도를 눈치 안보고 사용할 수 있는 직장에 다니는 경우에는 추가 출산을 계획할 수 있다.

와이프가 육아휴직하고 복직했어요. 와이프는 둘째를 갖고 싶어 해요(사례 2).

학력별로는 대학원이상 부모가 추가 출산 계획이 가장 많고, 전문대졸 부모가 낳을 계획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의 동일 문항 결과와 비교하면, 추가 출산 하지 않겠다(0명)는 응답 비율이 상승하였다(60.9% → 75.6%). 반면, 1명을 더 낳겠다는 응답은 34.7%에서 20.7%로 하락하였다(표 III-5-1 참조).

〈표 III-5-1〉 향후 추가 자녀 계획

단위: %, (명)						
구분	0명	1명	2명	3명	4명 이상	사례수
전체	75.6	20.7	3.3	0.3	0.2	100.0(2000)
연령						
20대	57.0	36.0	5.2	0.6	1.2	100.0(172)
30대	75.5	20.6	3.5	0.3	0.1	100.0(1522)
40대	86.3	12.7	1.0	0.0	0.0	100.0(306)
$\chi^2(df)$	58.988(8)***					
자녀수						
1명	41.6	47.0	10.0	0.7	0.7	100.0(541)
2명	86.0	13.1	0.8	0.1	0.0	100.0(1106)
3명 이상	94.9	4.2	0.6	0.3	0.0	100.0(353)
$\chi^2(df)$	492.382(8)***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73.7	19.5	5.3	1.0	0.6	100.0(524)
300만원~400만원 미만	77.2	20.6	2.1	0.0	0.0	100.0(514)
400만원~500만원 미만	77.1	18.9	3.7	0.0	0.3	100.0(380)
500만원~700만원 미만	75.7	22.1	2.0	0.2	0.0	100.0(453)
800만원 이상	71.3	26.4	2.3	0.0	0.0	100.0(129)
$\chi^2(df)$	32.57(16)**					

구분	0명	1명	2명	3명	4명 이상	사례수
맞벌이 여부						
외벌이	77.1	19.0	3.5	0.3	0.2	100.0(1039)
맞벌이	74.0	23.0	2.6	0.2	0.2	100.0(896)
무직	72.3	16.9	9.2	1.5	0.0	100.0(65)
$\chi^2(df)$	17.192(8)*					
최종학력						
고졸이하	72.8	22.5	4.1	0.3	0.3	100.0(342)
전문대졸	80.8	15.2	3.6	0.4	0.0	100.0(525)
4년제졸	74.8	22.0	2.8	0.1	0.2	100.0(917)
대학원이상	70.4	25.5	2.8	0.9	0.5	100.0(216)
$\chi^2(df)$	21.932(12)*					
2022년	60.9	34.7	3.9	0.3	0.2	100.0(2000)

주: 2022년 수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조사(미간행) 결과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향후 자녀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1,511명) 대상으로 이유를 물어본 결과, “계획한 자녀를 낳아서”(33.0%), “자녀 양육과 일 병행 부담” (28.9%), “자녀양육과 일 병행 부담”(16.3%) 순으로 나왔다.

연령별로는 20대는 “양육/교육 비용부담”(32.7%)이, 30대는 “계획한 자녀를 낳아서”(34.7%)가 각각 1순위를 차지했다. 40대는 계획한 자녀를 낳아서”(27.3%), “양육/교육 비용부담”(26.5%)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또한, 20대는 “자녀양육이 힘들어서”와 “주거비용 부담”(각 10.2%), 30대는 “자녀양육과 일 병행 부담”(17.3%), 40대는 “산모의 건강상태 노산의 우려”(20.8%)가 타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와서 연령대별 특성을 알 수 있다.

자녀수별로는 현재 자녀가 1명인 경우는 “양육/교육 비용부담”(41.3%)로 가장 많았고, “양육/교육 비용부담”(27.6%)이 다음을 차지하였다. 전체 1순위인 “계획한 자녀를 낳아서”는 4.9%에 그쳤다. 자녀수 2명 및 3명 이상은 “계획한 자녀를 낳아서”가 1순위를 차지했다. 요컨대, 자녀를 2명은 낳고 싶으나, 양육/교육 비용부담, 양육과 일과의 병행 부담, 산모의 건강상태 등으로 추가 출산을 꺼려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가구소득별로는 300만원 미만 가정은 “양육/교육 비용부담”(32.1%)가 1순위였으나, 나머지 구간대는 “계획한 자녀를 낳아서”가 1순위—500만원~700만원 미만 가정은 1,

2순위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800만 원 이상 고소득 가구는 “계획한 자녀를 낳아서”가 38.0%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2순위는 “자녀양육과 일 병행 부담”(32.6%)이 차지했다. 전체 2순위인 “양육/교육 비용부담”은 3순위이며 12.0%에 그쳤다. 저소득과 고소득 가정의 추가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가 뚜렷이 다를 수 있었다.

외별이 가정은 “계획한 자녀를 낳아서”(33.8%), “양육/교육 비용부담”(32.3%)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면, 맞벌이 가정은 “계획한 자녀를 낳아서”(33.2%)가 가장 많이 나왔다. 무직 가정은 “양육/교육 비용부담”(42.6%)이 1순위였다. 학력별로는 고졸이하는 “양육/교육 비용부담”(36.5%)이 가장 많이 나왔고, 나머지는 “계획한 자녀를 낳아서”가 1순위로 나왔다.

2022년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2022년에는 “양육/교육 비용부담”이 1순위, “계획한 자녀를 낳아서”가 2순위로 나왔고, 3순위는 동일하게 나왔다(표 III-5-2 참조). 추가 출산이 없는 이유는 이 세 가지가 주된 이유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녀가 3명인 사례 3이나 임신 중인 사례 11은 첫만남이용권이나 기타 출산지원정책으로 출산을 계획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사례 3은 출산을 한 결과, 이러한 지원을 받게 된 것이고, 사례 11은 원래 2명을 낳을 계획이었다.

셋째는 보통 계획은 하지 않습니다. 선물이죠. 그런데 받으니까 의외로 이렇게 복지 좋아졌네 생각하고. (첫만남이용권 등) 잘 써서 저는 만족하고 있어요(사례 3).

저희가 원래 그냥 둘째는 원했으니까 가지긴 했는데 이렇게 빠리는 가지지 안게끔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연구자: 내년부터 부모급여가 100만원이 늘어나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런다고 셋째를 낳아요? 그거 받자고(사례 11).

〈표 III-5-2〉 향후 추가 자녀 계획이 없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계획한 자녀를 낳아서	양육/ 교육 비용 부담	자녀 양육과 일 병행 부담	산모의 건강 상태 노산의 우려	주거 비용 부담	자녀 양육이 힘들 어서	기타	사례수
전체	33.0	28.9	16.3	8.4	7.1	6.0	0.1	100.0(1511)
연령								
20대	28.6	32.7	14.3	2.0	10.2	10.2	2.0	100.0(98)
30대	34.7	29.2	17.3	6.1	7.0	5.7	0.0	100.0(1149)
40대	27.3	26.5	12.9	20.8	6.4	6.1	0.0	100.0(264)
$\chi^2(df)$	102.095(12)***							

III. 첫만남이용권 이용 실태 및 만족도

구분	계획한 자녀를 낳아서	양육/ 교육 비용 부담	자녀 양육과 일 병행 부담	산모의 건강 상태 노산의 우려	주거 비용 부담	자녀 양육이 힘들 어서	기타	사례수
자녀수								
1명	4.9	41.3	27.6	12.4	8.4	4.4	0.9	100.0(225)
2명	34.9	27.2	17.5	7.6	6.5	6.3	0.0	100.0(951)
3명 이상	46.6	25.4	5.7	8.1	8.1	6.3	0.0	100.0(335)
$\chi^2(df)$			148.475(12)***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30.6	32.1	12.7	9.3	8.3	6.5	0.5	100.0(386)
300만원~400만원 미만	35.8	33.2	11.6	8.3	7.8	3.3	0.0	100.0(397)
400만원~500만원 미만	37.5	26.3	15.7	8.9	5.5	6.1	0.0	100.0(293)
500만원~700만원 미만	27.4	27.1	22.2	8.2	7.3	7.9	0.0	100.0(343)
800만원 이상	38.0	12.0	32.6	4.3	4.3	8.7	0.0	100.0(92)
$\chi^2(df)$			71.701(24)***					
맞벌이 여부								
외벌이	33.8	32.3	9.2	10.6	8.5	5.5	0.0	100.0(801)
맞벌이	33.2	23.8	25.6	5.7	5.4	6.2	0.0	100.0(663)
무직	17.0	42.6	6.4	8.5	8.5	12.8	4.3	100.0(47)
$\chi^2(df)$			160.048(12)***					
최종학력								
고졸이하	28.1	36.5	8.8	10.0	11.2	5.2	0.0	100.0(249)
전문대졸	31.1	28.3	16.3	9.7	7.5	6.8	0.2	100.0(424)
4년제졸	35.4	27.0	18.8	7.0	5.5	6.1	0.1	100.0(686)
대학원이상	35.5	27.0	17.8	8.6	6.6	4.6	0.0	100.0(152)
$\chi^2(df)$			35.098(18)**					
2022년	28.9	34.9	19.6	2.5	5.6	8.3	0.2	100.0(1219)

주: 2022년 수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조사(미간행) 결과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향후 자녀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489명)에게 첫만남이용권이 자녀계획 수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본 결과, 그렇다(약간+매우)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가 65.2%로 나왔다. 이중에서 “매우 그렇다”가 42.3%로 첫만남이용권이 추가 출산 계획에 긍정적으로 영향력을 끼쳤다. 5점 척도점수로 환산하면 3.84점이다.

연령별로는 평균점수 기준으로 20대가 가장 높고, 40대, 30대 순이다. 20대는 계획한 자녀수를 낳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앞의 표 참조) 첫만남이용권이 향후 자녀 계획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다는 점은 고무적인 결과라 하겠다. 40대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비율이 50.0%로 다른 연령대 대비 가장 높은 반면, “보통이다”도 26.2%로 2순위로 나타나 다른 연령대의 응답과 차이를 보였다. 그런데 자녀수 1명인 경우가 긍정적인 영향력이 3.81점으로 가장 낮았고, 자녀수 2명인 경우가 3.92점으로 가장 높았다. 자녀수 1명은 추가 출산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에도 첫만남이용권의 긍정적 영향력이 가장 낮게 나온 점은 양육/교육의 부담, 일과 병행의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가구소득별로는 300만원 미만의 저소득 가정이 4.12점으로 가장 높고, 800만원 이상 가정이 3.43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나타났다. 첫만남이용권은 저소득 가정의 추가 출산 계획에 더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맞벌이 가정(3.78점)보다는 외벌이 가정(3.92점)이 추가 출산에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입(소득)이 없는 무직 가정은 외벌이 가정보다도 낮은 3.78점으로 집계되어, 첫만남이용권이 이들 가정의 추가 출산에 기여하기에는 한계를 있어 보인다. 다시 말해서, 무직 가정은 안정적인 가구소득 창출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첫만남이용권으로 추가 출산을 계획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학력별로는 고졸이하 3.99점으로 가장 높고, 전문대졸이 3.86점으로 가장 낮았다. 추가 출산 계획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만 보면, 전문대졸이 가장 높고, 대학원 이상이 가장 낮았다.

2022년 결과와 비교하면, 긍정적 영향력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에는 4.25점이며 “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이 57.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었다(표 III-5-3 참조).

〈표 III-5-3〉 첫만남이용권의 자녀계획 영향력

단위: %, 점,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사례수
전체	5.7	11.7	17.4	22.9	42.3	3.84	100.0(489)
연령							
20대	6.8	4.1	12.2	33.8	43.2	4.03	100.0(74)
30대	5.4	13.9	17.4	22.0	41.3	3.80	100.0(373)
40대	7.1	4.8	26.2	11.9	50.0	3.93	100.0(42)
$\chi^2(df)/F$			17.333(8)*			1.136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사례수
자녀수							
1명	5.1	13.3	16.8	25.3	39.6	3.81	100.0(316)
2명	7.1	9.0	16.8	19.4	47.7	3.92	100.0(155)
3명 이상	5.6	5.6	33.3	11.1	44.4	3.83	100.0(18)
$\chi^2(df)/F$			10.116(8)			0.375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9	7.2	15.9	23.2	50.7	4.12	100.0(138)
300만원~400만원 미만	5.1	12.8	14.5	23.9	43.6	3.88	100.0(117)
400만원~500만원 미만	11.5	9.2	21.8	19.5	37.9	3.63	100.0(87)
500만원~700만원 미만	5.5	14.5	16.4	24.5	39.1	3.77	100.0(110)
800만원 이상	5.4	21.6	24.3	21.6	27.0	3.43	100.0(37)
$\chi^2(df)/F$			22.407(16)			3.453**	
맞벌이 여부							
외벌이	6.3	9.2	16.8	21.8	45.8	3.92	100.0(238)
맞벌이	5.6	14.2	16.7	24.0	39.5	3.78	100.0(233)
무직	0.0	11.1	33.3	22.2	33.3	3.78	100.0(18)
$\chi^2(df)/F$			8.078(8)			0.758	
최종학력							
고졸이하	4.3	10.8	12.9	25.8	46.2	3.99	100.0(93)
전문대졸	6.9	13.9	13.9	16.8	48.5	3.86	100.0(101)
4년제졸	6.5	11.7	21.2	20.8	39.8	3.76	100.0(231)
대학원이상	3.1	9.4	15.6	35.9	35.9	3.92	100.0(64)
$\chi^2(df)/F$			15.586(12)			0.878	
2022년	3.2	5.6	12.3	21.1	57.8	4.25	100.0(781)

주: 2022년 수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조사(미간행) 결과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나. 정책수요자가 희망하는 적정 금액

앞서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가 떨어진 주된 이유가 “금액 부족”이었다. 이러한 조사결과와 연결지어 볼 만한 문항으로 첫만남이용권의 금액(바우처 200만원)의 적정성에 대한 문항이다. 첫만남이용권의 금액(바우처 200만원)이 적정한 지를 알아본 결과,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27.7%로 가장 많았다. 긍정적 응

답인 “그렇다”(약간+매우)가 37.5%로 부정적 응답인 “그렇지 않다”(전혀+별로) 34.9%보다 좀 더 많았다. 5점 평균으로 환산하면 3.06점으로 금액에 대한 만족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별로는 평균 기준으로 30대(3.08점)가 가장 높고 40대(3.00점)가 가장 낮았으나,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자녀수별로는 자녀수 1명인 경우가 가장 낮고(2.77점), 2명인 경우(3.21점)가 가장 높았다. 자녀수 1명은 첫만남이용권을 처음 이용한 사례들인데, 이들의 부정적 응답(그렇지 않다) 비율이 46.3%로 전체보다 10%를 상회하면서 현재 바우처 금액 수준에 만족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녀가 2명 이상은 첫째 자녀는 첫만남이용권을 받지 못했다가 받은 경우들로써, 첫만남이용권의 금액에 대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가구소득별로는 8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2.91점)가 금액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가장 높았고, 400만원~500만원 미만 가구(3.17점)가 긍정적 의견이 가장 높았다.

맞벌이 가정(3.07점)이 외벌이 가정(3.05점)과 무직 가정(3.05점)보다 금액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전문대졸(3.03점)이 부정적 응답이 높았고, 나머지는 3.07점으로 동일했다.

2022년 조사와 비교하면, “보통이다” 응답은 감소하였고, “그렇다”(약간+매우)도 감소(2022년 41.2% →2023년 37.5%)하였다. 요컨대, 2022년 대비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200만원 금액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다는 응답이 많아졌다(표 III-5-4 참조).

〈표 III-5-4〉 첫만남이용권'의 금액 적정 여부

단위: %, 점,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사례수
전체	12.1	22.8	27.7	22.0	15.5	3.06	100.0(2000)
연령							
20대	10.5	28.5	24.4	21.5	15.1	3.02	100.0(172)
30대	11.7	22.7	27.7	22.1	15.8	3.08	100.0(1522)
40대	15.0	19.6	29.7	21.9	13.7	3.00	100.0(306)
$\chi^2(df)/F$			8.479(8)			0.600	
자녀수							
1명	15.2	31.1	25.3	19.0	9.4	2.77	100.0(541)
2명	9.8	19.8	28.7	23.7	18.1	3.21	100.0(1106)
3명 이상	14.7	19.3	28.3	21.2	16.4	3.05	100.0(353)
$\chi^2(df)/F$			56.782(8)***			23.246***	

III. 첫만남이용권 이용 실태 및 만족도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사례수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12.2	22.9	28.1	20.8	16.0	3.06	100.0(524)
300만원~400만원 미만	11.9	23.0	28.2	21.6	15.4	3.06	100.0(514)
400만원~500만원 미만	12.6	17.4	27.4	26.1	16.6	3.17	100.0(380)
500만원~700만원 미만	11.9	25.8	25.6	21.4	15.2	3.02	100.0(453)
800만원 이상	11.6	26.4	32.6	18.6	10.9	2.91	100.0(129)
$\chi^2(df)/F$			15.705(16)			1.284	
맞벌이 여부							
외벌이	12.7	21.7	29.3	20.8	15.6	3.05	100.0(1039)
맞벌이	10.9	24.1	26.7	23.3	15.0	3.07	100.0(896)
무직	18.5	21.5	16.9	23.1	20.0	3.05	100.0(65)
$\chi^2(df)/F$			11.249(8)			0.089	
최종학력							
고졸이하	14.6	19.9	27.8	19.0	18.7	3.07	100.0(342)
전문대졸	13.0	24.6	24.4	22.5	15.6	3.03	100.0(525)
4년제졸	10.5	23.4	29.7	21.7	14.7	3.07	100.0(917)
대학원이상	13.0	19.9	27.3	26.9	13.0	3.07	100.0(216)
$\chi^2(df)/F$			17.94(12)			0.114	
2022년	8.9	17.6	32.3	20.6	20.6	3.27	100.0(2000)

주: 2022년 수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조사(미간행) 결과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현재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200만원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을(표 III-5-4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한 대상자들에게 그렇다면 희망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주관식으로 알아보았다. 결과 평균 594.7만원(표준편차 976.3), 중위 값은 500만원으로 집계되었다.

참고로 현재 바우처 금액(200만원)에 대해 불만족한 경우에 한해서 설문했기에 온라인 조사 시, 최소 금액을 201만원으로 설정하였다. 최소 금액은 201만원, 최대 금액은 10,000만원(1억원)이 나왔다. 금액을 구간별로 묶었을 때, 500만원 이상이 60.7%로 가장 많았고, 300~399만원이 27.4%, 400~499만원이 11.0% 순으로 나왔다.

연령별로는 40대가 평균 798.1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20대가 433.28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앞서 40대는 적정 금액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므로 희망

금액이 가장 높게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금액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30대가 20대 보다 제시한 적정 금액은 더 높았다는 점에서 만족도와 실제 희망하는 적정 금액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희망 금액도 커졌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가구 소득별 변인에서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월 8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가 희망 금액이 평균 742.86만원으로 가장 컸다. 가구유형별로는 외벌이 가정(599.16만원), 맞벌이 가정(590.92만원), 무직 가정(578.85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높을수록 적정 금액이 높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정리하면, 40대, 자녀 3명이상, 800만원 이상 가구소득, 외벌이, 대학원 이상에서 희망 금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대(1000만원), 무직가정(2100만원), 고졸이하(5000만원) 집단에서 최대값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는데 이들의 현재 경제활동 수준과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겠다. 대체로 이들은 낮은 급여를 받는 경제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희망 금액도 그 한도 내에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조사에서는 객관식 문항으로 설문했기 때문에 동일 구간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2022년에는 200이상~300만원 미만이 33.2%로 가장 많았고, 300~400만원, 500만원 이상 순으로 집계되었다(표 III-5-6 참조).

첫만남이용권 금액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이 높아진 주된 이유는 그동안 물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023년 6월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7% 상승하였고(통계청, 2023.7.4.: 2),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석유류 및 농산물 가격 변화에 따라 큰 폭으로 반등하였다(한국은행, 2023. 9. 5.).

서울에 거주하는 사례 5, 6은 서울의 높은 물가로 인해 육아비용이 많이 드는데, 특히 서울의 산후조리원 비용은 2주 기준으로 평균 500만원~600만원으로 첫만남이용권은 산후조리원비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했다.

육아용품은 엄청 비싸요. 분유가 한달 사이에 5천원이 올랐어요(사례 5).

물가 상승률 반영했을 때 첫만남이용권은 산후조리원비조차 안돼요. 반값도 안돼요(사례 6).

〈표 III-5-5〉 정책수요자가 희망하는 ‘첫만남이용권’ 적정 금액

단위: %, 만원, (명)

구분	201~299	300~399	400~499	500 이상	최소	최대	평균	표준 편차	중위값	사례수
전체	0.9	27.4	11.0	60.7	201	10000	594.69	976.27	500.00	100.0(697)
연령										
20대	1.5	38.8	17.9	41.8	250	1000	433.28a	183.59	400.00	100.0(67)
30대	1.0	27.9	10.7	60.5	201	10000	572.90ab	862.46	500.00	100.0(524)
40대	0.0	17.9	8.5	73.6	300	10000	798.10b	1591.47	500.00	100.0(106)
F							3.258*			
자녀수										
1명	0.0	27.6	14.4	58.0	300	10000	574.80	882.01	500.00	100.0(250)
2명	1.5	29.7	9.8	59.0	201	10000	604.13	1069.56	500.00	100.0(327)
3명 이상	0.8	20.8	7.5	70.8	250	10000	610.42	900.82	500.00	100.0(120)
F							.083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1.6	32.1	12.5	53.8	250	10000	532.88	733.99	500.00	100.0(184)
300만원~400만원 미만	1.1	25.1	10.6	63.1	250	10000	662.01	1240.48	500.00	100.0(179)
400만원~500만원 미만	0.0	30.7	6.1	63.2	300	1000	496.48	208.95	500.00	100.0(114)
500만원~700만원 미만	0.6	26.3	12.3	60.8	201	10000	613.75	1055.43	500.00	100.0(171)
800만원 이상	0.0	14.3	14.3	71.4	300	10000	742.86	1380.37	500.00	100.0(49)
F							.984			
맞벌이 여부										
외벌이	1.4	30.5	9.5	58.5	201	10000	599.16	1027.02	500.00	100.0(357)
맞벌이	0.3	24.8	12.7	62.1	250	10000	590.92	953.42	500.00	100.0(314)
무직	0.0	15.4	11.5	73.1	300	2100	578.85	364.46	500.00	100.0(26)
F							.009			
최종학력										
고졸이하	0.8	27.1	15.3	56.8	250	2100	502.11	249.48	500.00	100.0(118)
전문대졸	1.5	35.5	8.1	54.8	250	10000	566.75	978.36	500.00	100.0(197)
4년제졸	0.0	22.2	12.5	65.3	300	10000	628.46	1093.17	500.00	100.0(311)
대학원 이상	2.8	28.2	5.6	63.4	201	10000	678.18	1171.07	500.00	100.0(71)
F							.704			
2022년	100~200	200~300	300~400	400~500	500이상					사례수
	5.2	33.2	30.1	12.0	19.4					100.0(2000)

주: 2022년 수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조사(기간행) 결과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확대와 추가 출산

정부가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금액을 확대할 경우, 자녀를 추가 출산할 계획이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그렇다”(약간+매우)는 긍정적 응답이 46.4%, “그렇지 않다”(전혀+별로) 37.7%로 약 10%가까이 많이 나왔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22.6%로 긍정적인 답변 못지않게 많이 나왔다.

5점 점수로 환산하면, 3.09점으로나 2022년 3.40점에 비해 많이 하락한 수치이다(표 III-5-6 참조). 연령별로는 20대가 3.68점으로 추가 출산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응답했고, 30대, 40대 순으로 나왔다. 자녀수별로는 1명인 경우가 3.87점으로 추가 출산 의향이 가장 높았고, 2명, 3명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금액이 확대된다면, 추가 출산 의향이 높았다. 외벌이와 맞벌이의 차이는 없고, 무직 가정이 3.49점으로 추가 출산 의향이 높았다. 학력별로는 고졸이하가 3.30점으로 가장 높았고, 대학원 이상도 3.19점으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왔다. 전문대졸이 2.96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를 종합해 보면, 부모 나이가 젊고, 자녀수가 적으며 가구소득이 낮은 가정은 ‘첫만남이용권’ 금액이 확대된다면, 추가 출산을 고려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조사와 비교하면 첫만남이용권 금액 확대 시, 추가 출산을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55.1%에서 46.4%로 감소하였고 대신, 부정적 의견이 28.3%에서 37.7%로 상승하였다(표 III-5-6 참조).

〈표 III-5-6〉 ‘첫만남이용권’ 금액 확대 시, 추가 출산 의향

단위: %, 점,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사례수
전체	22.6	15.1	16.0	23.3	23.1	3.09	100.0(2000)
연령							
20대	12.2	7.0	19.2	23.8	37.8	3.68	100.0(172)
30대	22.5	15.8	15.0	23.7	23.1	3.09	100.0(1522)
40대	29.1	16.3	18.6	20.9	15.0	2.76	100.0(306)
$\chi^2(df)/F$	51.027(8)***					21.363***	

III. 첫만남이용권 이용 실태 및 만족도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사례수
자녀수							
1명	6.1	9.2	14.2	32.3	38.1	3.87	100.0(541)
2명	26.2	18.6	17.7	19.9	17.5	2.84	100.0(1106)
3명 이상	36.5	13.0	13.0	19.8	17.6	2.69	100.0(353)
$\chi^2(df)/F$	227.837(8)***					115.329***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19.1	13.4	14.9	23.3	29.4	3.31	100.0(524)
300만원~400만원 미만	24.1	13.8	15.0	23.0	24.1	3.09	100.0(514)
400만원~500만원 미만	24.7	15.8	17.4	22.1	20.0	2.97	100.0(380)
500만원~700만원 미만	23.0	16.6	17.4	24.3	18.8	2.99	100.0(453)
800만원 이상	23.3	20.2	14.7	24.0	17.8	2.93	100.0(129)
$\chi^2(df)/F$	27.173(16)*					4.274**	
맞벌이 여부							
외벌이	23.7	15.3	14.5	22.1	24.4	3.08	100.0(1039)
맞벌이	21.8	15.4	17.3	24.8	20.8	3.07	100.0(896)
무직	16.9	7.7	20.0	20.0	35.4	3.49	100.0(65)
$\chi^2(df)/F$	16.003(8)*					2.459	
최종학력							
고졸이하	22.2	9.9	15.5	20.8	31.6	3.30	100.0(342)
전문대졸	26.1	14.7	17.3	21.0	21.0	2.96	100.0(525)
4년제졸	21.3	17.4	16.0	23.9	21.4	3.07	100.0(917)
대학원이상	20.4	14.4	13.0	30.1	22.2	3.19	100.0(216)
$\chi^2(df)/F$	35.023(12)***					3.972**	
2022년	16.2	12.1	16.6	25.6	29.6	3.40	100.0(2000)

주: 2022년 수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조사(미간행) 결과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면담조사에서도 첫만남이용권이 만족도 높은 기분좋은 정책이지만 이것 때문에 추가 출산 할 계획이 있는 경우는 자녀수와 상관없이 단 한 사례도 없었다.

첫만남이 도움은 되지만 이 정책으로 더 아이를 낳을 생각은 없습니다(사례 1, 2, 3, 4).

만약 첫만남을 두배로 준다고 해도(400만원) 더 낳을 생각은 없어요. 출산을 장려하려면 일
회성보다는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해요(사례 5).

첫만남뿐만 아니라 부모급여 그런 정책이 출산 계획을 좌우하지는 않아요. 집을 준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는 출산 안 할 것 같아요(사례9).

끝으로 첫만남이용권 개선점이나 출산지원정책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한 결과, 가장 많이 나온 응답이 “첫만남이용권” 지원금 확대(21.6%)였고, “가족카드처럼 2개 이상 카드가 발급되면 좋겠다”(11.0%), “카톡을 통해 신청 가능하면 좋겠다”(9.6%) 외 “출산후 자동 신청이 되었으면 한다”(1.2%) 등의 소수 의견도 있었다.¹¹⁾

11) 부표 13 참조

IV

결론

01 연구요약

02 정책제언

IV. 결론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내용을 정리, 요약하고 결과를 토대로 첫만남이용권 정책에 대해 제언으로 결론을 맺었다.

1. 연구요약

첫만남이용권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의 4개 추진 전략 중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의 4번째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 핵심과제에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현금지원이 OECD 주요국에 비해 낮고, 출산·양육 서비스 위주 정책 확장으로 양육비용이 여전히 부담된다는 국민의 체감도 등의 이유로 2022년 4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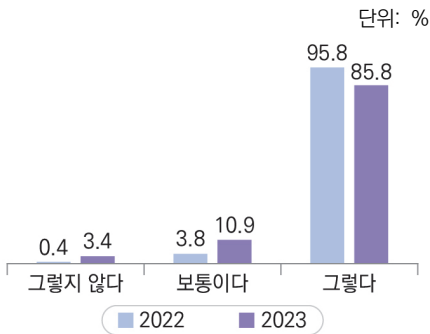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2022년도에 실시한 설문조사와 동일한 조건—첫만남이용권 소진자—과 규모—전국규모 2,000명—로 실시하였다. 추가로 첫만남이용권을 사용한 정책수요자들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첫만남이용권은 정책수요자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정책임이 재차 확인되었으나,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결과 중심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첫만남이용권은 96.2%가 출산 전—임신 준비시기 및 임신 중—에 알게 되었고, 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되었다. 신청방법은 2022년, 2023년 모두 방문신청이 온라인 신청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자녀를 출생신고하면서 첫만남이용권을 발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면담에서 출생신고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부모가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하면서 발급받는 경우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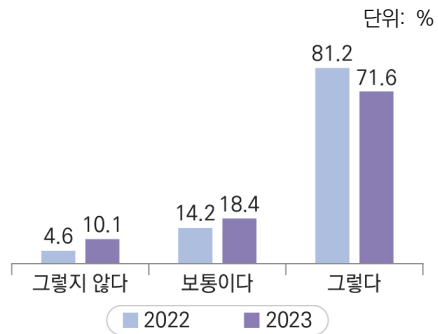
둘째, 첫만남이용권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022년 4.79점, 2023년 4.47점으로 다소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그렇지 않다”와 “보통이다” 라는 부정적인 응답이 3배 정도 증가하였다(그

림 IV-1-1 참조). 첫만남이용권의 목적이 출생 초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있는데 “그렇다”는 응답이 약 72%로 여전히 높게 나왔으나, 2022년에 비해 떨어진 수치이다(그림 IV-1-2 참조). 2022년도에 비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2배 이상 높았다.

[그림 IV-1-1] 2022년·2023년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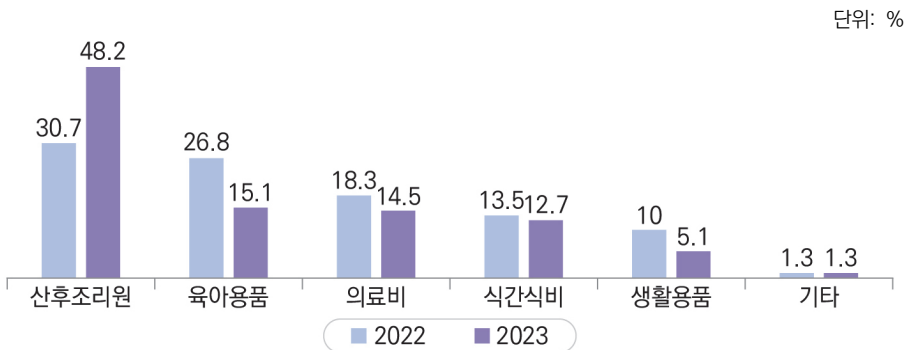


[그림 IV-1-2] 2022년·2023년 첫만남이용권
가계경제 도움 비교



셋째, 첫만남이용권의 주 사용처는 2022년, 2023년 모두 ‘산후조리원’으로 나타났다. 2022년 대비 2023년의 산후조리원 사용율이 약 18% 가까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23년도 설문에서는 사용처를 좀 더 세분화하여 설문하였으나, 결과는 거의 동일하게 나왔다. 즉, 산후조리원 다음으로 육아용품, 의료비, 식·간식비, 생활용품 순으로 자녀와 가족의 생활을 위해 첫만남이용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3] 2022년·2023년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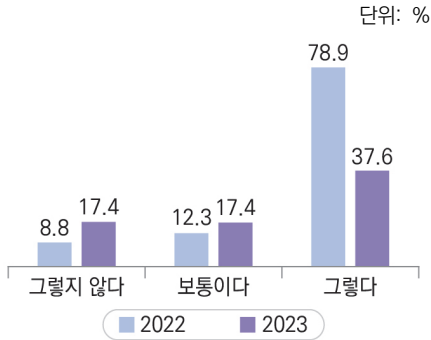
넷째, 첫만남이용권의 적정 금액(바우처 200만원)에 대해서는 2022년 3.27점에서 2023년 3.06점으로 하락하였다. 5점 척도이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것으로 수치가 하락했다는 것은 금액이 만족스럽지 않은 비중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다” 응답비율: 2022년 26.5%→2023년 34.9%). 그렇다면, 부정적으로 응답한 이들에게 희망하는 적정 금액이 얼마인지를 2023년에는 주관식 문항으로 설문하였는데 대부분 변인에서(20대, 무직, 고졸이하 제외) 최대 1억원(10,000만원)이 나왔다. 평균값은 594.7만원, 중위값은 500만원으로 집계되었다. 객관식 문항으로 설문한 2022년도에는 200~300만원미만이 33.2%, 300~400만원미만 30.1%로 나온 결과와 비교해 보면, 정책수요자들이 희망하는 적정 금액은 훨씬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첫만남이용권을 발급받은 부모(보호자)들은 2022년, 2023년 모두 추가 출산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각각 60.9%, 75.6%로 다수였다. 그 이유는 2022년에는 “비용부담”이 1순위였다면, 2023년에는 “계획한 자녀수를 낳아서”가 가장 많았다. 추가 출산 의향이 있는 대상자들에게 첫만남이용권이 자녀계획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본 결과, 2022년에는 4.25점, 2023년에는 3.84점으로 하락하였다. 추가 출산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자녀수 1명 가정에서 3.81점으로 가장 낮았는데, “비용부담”으로 추가 출산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41.3%로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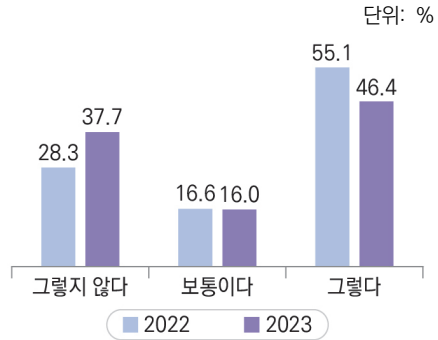
끝으로, 첫만남이용권이 추가 출산에 영향력 정도를 알아보았다. 우선, 추가 출산이 있다는 대상자에게 첫만남이용권이 추가 출산을 계획하는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본 결과, 2022년 4.25점에 비해 2023년에는 3.84점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전체 대상으로 첫만남이용권 금액을 확대할 경우 추가 출산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에서도 2022년 3.40점에서 2023년 3.09점으로 하락하였다. 요컨대, 두 문항 모두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응답이 전년 대비 상승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첫만남이용권의 만족도는 2022년 첫해 대비 대체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면담조사에서는 대부분 만족도가 높았다. 바우처이지만 사용처가 다양하고 금액도 일시불로 지급되는 육아정책 중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정책수요자의 호응은 여전히 높다. 매년 만족도 조사를 통해 만족도의 안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림 IV-1-4] 2022년·2023년 첫만남이용권이
추가 출산 영향력



[그림 IV-1-5] 2022년·2023년 첫만남이용권
금액 확대 시, 추가 출산 의향



2. 정책제언

첫만남이용권은 타 육아정책과 비교해서 정책수요자들에게 호응도가 높고, 실제 가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분 좋은”¹²⁾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계속해서 발전시켜 추진해 나아가기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신청/이용 편리성이 높게 나온 결과 등을 고려해서 (표 III-4-1 참조), 현행처럼 일시 지급, 사용 기간(발급 후 1년 내 소진), 사용처의 극히 일부 제한 등의 기조를 유지한다. 첫만남이용권으로 명품가방이나 자동차를 구입한다는 신문보도가(아시아경제, 2023. 9. 9.) 나오기는 했으나, 극소수이다. 본 연구의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도 자동차 구입은 자녀의 안전을 위해 즉, 자녀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적절한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각 가정이 처한 상황에 맞춰 첫만남이용권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현행 정책 방식 기조를 유지한다.

둘째, 첫만남이용권의 발급 시기가 개인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산후조리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산후조리원 비용을 결제한 후에 첫만남이용권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개인카드(또는 현금)로 먼저 결제하고, 바우처 발급 후에 다시 취소하고 재결제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부모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첫만남이용권을 알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터넷에 익숙한 부

12) 본 면담조사에서 나온 용어라서 인용표시함.

모세대인 점을 고려하여 출산한 병원에서 출생신고와 첫만남이용권을 동시에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편리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병원에서 출생신고 시스템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셋째, 부모들은 첫만남이용권의 불만족한 이유로 금액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고, 개선점으로는 금액의 증액을 가장 많이 희망하였다. 정책수요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과이다. 2023년도 설문에서는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적정 금액을 오픈 문항을 물어보았는데, 변인에 상관없이 최대값이 1억원이 나왔다.

2024년부터는 둘째아부터 첫만남이용권을 300만원으로 증액, 지급하기로 확정하였다(머니투데이, 2023. 8. 29.). 금액을 증액하면 정책수요자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가계 경제에 도움도 더 많이 되겠으나, 만족도의 지속성 및 추가 출산과 같은 장기적인 효과를 낙관하기는 어렵다. 2022년보다 2023년에 조사에서 첫만남이용권이 경제적 부담 완화, 적정 금액 여부, 추가 출산 계획 등에서 모두 하락하였다. 이는 첫만남이용권 자체의 만족도가 일년 사이에 떨어졌다고보다는 소비자물가지수가 많이 올라서 금액에 대한 체감이 달라졌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끝으로 앞으로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조사에 대한 보완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음년도 조사에서는 다른 실태조사들과 동일하게 지역별 분석을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인 현재 권역별 분석보다 더 구체적인 차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제 카드 사용처 데이터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2022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분석한 사용처 결과와 설문조사 결과의 1순위가 각각, 육아용품과 산후조리원으로 다르게 나왔다. 결제한 가맹점명에서 무엇을 구입했는지까지는 파악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가장 많이 사용한 1순위는 무엇인지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하는 물품(장소)은 무엇인지는 카드 사용 데이터 분석이 병행되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경향신문(2023.08.27.). 산후조리원 2주 비용 ‘최고 3800만원, 최저 130만원’.
<https://m.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8272044015#c2b>(인출일: 2023.10.26.).
- 대한민국정부(202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 계획(2021~202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베이비뉴스(2023.8.29.) 내년에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지원액 인상.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542>(인출일: 2023.10.15.).
- 보건복지부(2023). 2023년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1.12.3.). 영아기 첫만남꾸러미[영아기 집중투자] 지원 사업 안내.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cg_code=(인출일: 2023.12.26.).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4.1.). 첫만남이용권(출생아 당 200만 원 바우처) 지급 개시,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cg_code=(인출일: 2023.12.26.).
- 아시아경제(2023.9.9.). “‘첫만남이용권’ 백화점 사용될까요?”... 출산바우처, 명품에 사용하는 부부들, <https://www.asiae.co.kr/article/2023090416521621845>(인출일: 2023.10.12.).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query=%EC%A0%80%EC%B6%9C%EC%82%B0%EA%B3%A0%EB%A0%B9%EC%82%AC%ED%9A%8C%20%EA%B8%B0%EB%B3%B8%EB%B2%95%20&dt=20201211#undefined>(인출일: 2023년 10월 11일).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시행령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query=%EC%A0%80%EC%B6%9C%EC%82%B0%EA%B3%A0%EB%A0%B9%EC%82%AC%ED%9A%8C%20%EA%B8%B0%EB%B3%B8%EB%B2%95%20&dt=20201211#undefined>(인출일: 2023년 10월 11일).
- 통계청(2023.7.4). 2023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https://kostat.go.kr/board.es?mid=b70203010000&bid=213&list_no=426199&act=view&mainXml=Y

(인출일: 2023.12.26.).

통계청a(2023.8.30). 2022년 출생 통계.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04&list_no=426806&act=view&mainXml=Y
(인출일: 2023.10.11.).

통계청b(2023.8.30.). 2023년 6월 인구동향.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04&list_no=426810&act=view&mainXml=Y
(인출일: 2023.10.11.).

한국사회보장정보원(2022).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조사. 미간행.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 http://www.ssis.or.kr/lay1/bbs/S1T67C101/B/101/view.do?article_seq=125064(인출일: 2023.10.11.).

한국은행(2023.9.5). 2023년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반등 요인과 향후 흐름,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347/view.do?nttId=10079341&menuNo=201106&pageIndex>(인출일: 2023.10. 13.).



부록

부록 1. 면담지

첫만남이용권 사용 실태 파악을 위한 면담지

1) 응답자 및 가구 현황

자녀와의 관계	
연령대(나이)	
거주지역	
동거 가족수	
본인직업	
맞벌이 여부	
월 가구소득	

2) 첫만남이용권 발급 자녀 현황

성별	
출생연도	
출생순위	
장애여부	

3) 첫만남이용권 인지 및 신청 관련

- 3-1. 첫만남이용권을 언제 어떤 경로로 처음 알게 되셨는지요?
- 3-2. 첫만남이용권을 실제로는 언제, 누가 신청하셨는지요?

4) 첫만남이용권 이용 관련

- 4-1. 첫만남이용권을 주로 사용한 사람은 누구십니까?
- 4-2. 첫만남이용권을 주로 어디에 사용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4-3. 첫만남이용권 발급부터 소진까지 소요기간을 말씀해 주십시오.

5) 첫만남이용권 개선점

- 5-1.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하거나 이용할 때, 불편한 점이 있으셨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5-2. 첫만남이용권이 다른 육아지원정책들(임신출산의료비지원,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과 비교했을 때, 장단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6) 추가 출산 계획

- 6-1. 추가 출산 계획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언제쯤 몇 명 정도 계획이신지요?
없으시면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6-2. 추가 출산을 계획하실 때, 첫만남이용권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셨는지
요? 만약, 첫만남이용권이 증액된다면 추가출산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까요?

7) 기타

출산을 꺼려하는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2. 설문지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조사

안녕하세요. 육아정책연구소는 국무총리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첫만남이용권’을 이용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와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전문기관인 (주)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2022년 또는 2023년에 자녀를 출산하고 2023년 6월까지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를 전부 소진하신 분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향후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통계증서자 등의 의무)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 설문대상 : 첫만남이용권 전액 사용자 (설문 참여 문자 수신인만 참여 가능합니다)
- 조사기간 : 2023.9.18. ~ 2022.9.22. (참여자 많은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응답시간 : 약 5분 내외
- 실사기관 : (주)엠브레인퍼블릭 (문의: 조은정 매니저 02-3429-1786)
- * 응답자 중 2,000명을 추첨하여 이디야 아메리카노 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I. 응답자 특성

S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SQ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이상

SQ3. 귀하는 어느 지역에 거주하십니까?

_____시/도 _____시/군/구

SQ4. 귀하의 자녀는 총 몇 명입니까? (현재 임신 중인 자녀는 제외)

-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이상

SQ5. 귀하는 현재 임신 중이십니까?

- ① 예 (임신 중) ② 아니오

SQ6. 귀하의 가정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외벌이 가정 ② 맞벌이 가정(육아휴직 중 포함) ③ 무직

SQ7.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고졸 이하 (대학 재학/중퇴 포함) ② 전문대(2~3년) 졸업
③ 4년제 대학 졸업 ④ 대학원 재학 이상

II. 첫만남이용권 해당 아동 특성

Q1. 첫만남이용권 해당 자녀의 성별을 말씀해 주십시오.

- ① 남아 ② 여아

Q2. 첫만남이용권 해당 자녀의 출생순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 ① 첫째 ② 둘째 ③ 셋째 ④ 넷째 ⑤ 다섯째 이상

Q3. 첫만남이용권 해당 자녀는 다태아(쌍둥이)입니까?

- ① 다태아(쌍둥이) 아님 ② 쌍둥이(쌍생아)
③ 세쌍둥이 ④ 네쌍둥이 이상

Ⅲ.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이용 실태

Q4. ‘첫만남이용권’을 언제 처음 알게 되셨습니까?

- ① 임신 전 (임신 준비시기) ② 임신 중 ③ 출산 직후
④ 출생신고 시 ⑤ 출산 후 한 달 지나서 (출생 신고 이전)

Q5. ‘첫만남이용권’을 누가 신청하셨습니까?

- ① 자녀의 어머니 (본인) ② 자녀의 아버지 (배우자)
③ 자녀의 조부모 ④ 기타()

Q6. 첫만남이용권’을 누가 주로 사용하셨습니까?

- ① 자녀의 어머니 (본인) ② 자녀의 아버지 (배우자)
③ 자녀의 조부모 ④ 기타()

Q7. ‘첫만남이용권’을 어떻게 신청하셨습니까?

- ①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③ 기타()

Q8. ‘첫만남이용권’을 주로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합계가 100%가 되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또한, 각 항목별로 누구를 위해 사용했는지 선택해 주십시오.

사용처	비중	사용대상[중복응답]
1) 육아용품 (옷, 기저귀, 장난감 등)	%	①해당자녀 ②가족(본인포함)
2) 식·음료비 (분유, 이유식, 식비 등)	%	①해당자녀 ②가족(본인포함)
3) 의료비 (병원, 약국 등)	%	①해당자녀 ②가족(본인포함)
4) 산후조리원	%	
5) 생활용품 (육아용품 제외)	%	①해당자녀 ②가족(본인포함)
6) 문화생활비 (영화, 연극, 여행, 레저)	%	①해당자녀 ②가족(본인포함)

사용처	비중	사용대상[중복응답]
7) 서비스비용 (개인관리 목적의 스포츠센터 등록, 헤어샵, 마사지 등)	%	①해당자녀 ②가족(본인포함)
8) 교육비 (책/교재·교구 구입, 온라인 교육, 학원 수강 등)	%	①해당자녀 ②가족(본인포함)
9) 교통비 (주유비, 대중교통비 등)	%	①해당자녀 ②가족(본인포함)
10) 기타	%	①해당자녀 ②가족(본인포함)
합계		

Q8. 기타 사용처 : _____

IV.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이용 만족도

Q9. ‘첫만남이용권’ 신청 및 이용 등이 편리하십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Q9-1. 신청 방법	①	②	③	④	⑤
Q9-2. 이용 가능 업체/물품	①	②	③	④	⑤
Q9-3. 이용 기간 (1년 동안 소진)	①	②	③	④	⑤
Q9-4. 전반적인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Q9-4-1. [Q9-4=①/②/③ 응답자] 첫만남이용권이 전반적으로 불만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보기를 모두 선택해주시요. [중복응답]

- ① 자녀 출산 후에야 발급받을 수 있어서
- ②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해야 해서
- ③ 신청 후 바로 지급되지 않아서
- ④ 바우처 지급이라 사용처가 제한되서
- ⑤ 바우처 금액이 부족해서
- ⑥ 기타(_____)

V. 첫만남이용권 정책과 추가 출산 여부 등

Q10. 귀하는 앞으로 몇 명의 자녀를 더 낳을 계획입니까?

- ① 0명 (향후 자녀 계획 없음)
- ② 1명 (현재 임신 중인 자녀 포함)
- ③ 2명
- ④ 3명
- ⑤ 4명 이상

Q10-1. [Q10=① 응답자] 추가 자녀 계획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계획한 자녀를 다 낳아서
- ② 양육(교육) 비용 부담 때문에
- ③ 주거 비용 부담 때문에
- ④ 자녀 양육과 일 병행 부담 때문에
- ⑤ 자녀 양육이 힘들어서
- ⑥ 산모의 건강상태 또는 노산의 우려 때문에
- ⑦ 기타(_____)

Q11. [Q10=②/③/④/⑤ 응답자] 추가 자녀 계획 수립 시 ‘첫만남이용권’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Q12. ‘첫만남이용권’이 생애초기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Q13. ‘첫만남이용권’이 다른 출산육아지원정책들과 비교해서 출생초기 양육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구분	전혀 도움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되지 않았다	보통이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Q13-1. 임신출산의료비지원 (국민행복카드)	①	②	③	④	⑤
Q13-2. 부모급여	①	②	③	④	⑤
Q13-3. 아동수당	①	②	③	④	⑤

Q14.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금액(아동 1인당 200만원)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Q14-1.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의 적정 금액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만원
Prog: 숫자 입력 시, 해당 금액 한글로 제시
[Prog: (응답범위) 201만원 이상]

Q15. 정부가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금액을 확대한다면 자녀를 더 출산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Q16. 출산/양육 지원과 관련하여 ‘첫만남이용권’의 개선점이나 보다 활용도 높은 정책이 되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제안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응답해 주십시오.

(예시: 웹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방법 외에 카카오톡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면 좋겠다, 가족카드처럼 2개 이상의 카드로 사용 가능했으면 한다 등)

III. 통계 분류

DQ1. 귀 닥의 월 평균 가구소득(세전 기준)은 어떻게 되십니까?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작성)

- | | |
|-----------------|------------------|
| ① 100만 원 미만 | ② 100~200만 원 미만 |
| ③ 200~300만 원 미만 | ④ 300~400만 원 미만 |
| ⑤ 400~500만 원 미만 | ⑥ 500~600만 원 미만 |
| ⑦ 600~700만 원 미만 | ⑧ 700~800만 원 미만 |
| ⑨ 800~900만 원 미만 | ⑩ 900~1000만 원 미만 |
| ⑪ 1000만 원 이상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본 조사는 설문조사 대행업체인 (주)엠브레인퍼블릭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조사 참여자에 대한 답례품 발송, 응답 내용 검증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 기간 이후 즉시 파기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① 수집 및 이용하는 자 : (주)엠브레인퍼블릭
- ② 수집 및 이용 목적 : 조사 답례품 발송 및 응답 내용 검증
- ③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항목 : 연락처, 설문 응답내용
-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응답 완료로부터 6개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답례품 제공에 제약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① 제공받는 자 : 육아정책연구소
- ②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응답 내용 검증
-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연락처, 설문 응답내용
-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받은 후 6개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답례품 제공에 제약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연락처	
-----	--

부록 3. 부표

〈부표 1〉 첫만남이용권 사용처별 사용대상: ① 육아용품(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해당 자녀	가족 (본인 포함)	사례수
전체	93.6	15.1	(834)
연령			
20대	93.8	16.0	(81)
30대	92.8	16.2	(622)
40대	97.7	9.2	(131)
자녀수			
1명	100.0	0.0	(99)
2명	93.4	15.7	(542)
3명 이상	91.2	21.2	(193)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92.6	14.8	(244)
300만원~400만원 미만	94.1	13.7	(219)
400만원~500만원 미만	94.6	15.5	(168)
500만원~700만원 미만	92.2	18.6	(167)
800만원 이상	100.0	8.3	(36)
맞벌이 여부			
외벌이	93.0	15.8	(455)
맞벌이	94.0	15.5	(348)
무직	100.0	0.0	(31)
최종학력			
고졸이하	93.5	13.5	(170)
전문대졸	93.0	17.8	(214)
4년제졸	94.3	14.4	(367)
대학원이상	92.8	14.5	(83)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임.

〈부표 2〉 첫만남이용권 사용처별 사용대상: ② 식음료비(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해당 자녀	가족 (본인 포함)	사례수
전체	77.3	45.8	(757)
연령			
20대	77.6	50.7	(67)
30대	77.6	45.6	(563)
40대	75.6	44.1	(127)
자녀수			
1명	82.9	37.8	(82)
2명	78.4	43.4	(486)
3명 이상	72.0	55.6	(189)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74.8	47.0	(230)
300만원~400만원 미만	77.5	45.0	(209)
400만원~500만원 미만	78.7	46.1	(141)
500만원~700만원 미만	81.9	43.6	(149)
800만원 이상	64.3	53.6	(28)
맞벌이 여부			
외벌이	75.2	46.7	(420)
맞벌이	79.6	45.0	(309)
무직	82.1	42.9	(28)
최종학력			
고졸이하	74.8	43.9	(155)
전문대졸	76.4	49.1	(212)
4년제졸	79.0	45.7	(324)
대학원이상	77.3	40.9	(66)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임.

〈부표 3〉 첫만남이용권 사용처별 사용대상: ③ 의료비(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해당 자녀	가족 (본인 포함)	사례수
전체	76.3	48.3	(743)
연령			
20대	73.6	56.6	(53)
30대	77.1	47.9	(555)
40대	74.1	46.7	(135)
자녀수			
1명	78.8	43.8	(160)
2명	75.9	47.2	(436)
3명 이상	74.8	56.5	(147)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76.7	46.7	(210)
300만원~400만원 미만	78.5	48.0	(200)
400만원~500만원 미만	74.3	48.5	(136)
500만원~700만원 미만	75.0	52.0	(152)
800만원 이상	75.6	44.4	(45)
맞벌이 여부			
외벌이	75.2	49.4	(395)
맞벌이	77.8	46.8	(325)
무직	73.9	52.2	(23)
최종학력			
고졸이하	77.3	44.5	(128)
전문대졸	74.0	54.6	(196)
4년제졸	77.0	46.6	(339)
대학원이상	77.5	46.3	(80)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임.

〈부표 4〉 첫만남이용권 사용처별 사용대상: ④ 산후조리원(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해당 자녀	가족 (본인 포함)	사례수
전체	68.5	62.6	(1125)
연령			
20대	70.7	71.7	(92)
30대	67.5	63.3	(870)
40대	73.0	53.4	(163)
자녀수			
1명	71.2	61.7	(399)
2명	65.7	64.5	(577)
3명 이상	72.5	57.7	(149)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70.5	63.8	(268)
300만원~400만원 미만	66.8	64.4	(292)
400만원~500만원 미만	67.9	60.3	(209)
500만원~700만원 미만	68.9	60.4	(270)
800만원 이상	68.6	65.1	(86)
맞벌이 여부			
외벌이	69.4	63.9	(582)
맞벌이	67.4	61.6	(515)
무직	71.4	53.6	(28)
최종학력			
고졸이하	69.2	64.1	(156)
전문대졸	65.8	61.4	(295)
4년제졸	69.3	63.9	(538)
대학원이상	70.6	58.1	(136)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임.

〈부표 5〉 첫만남이용권 사용처별 사용대상: ⑤ 생활용품(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해당 자녀	가족 (본인 포함)	사례수
전체	54.7	78.1	(384)
연령			
20대	45.0	87.5	(40)
30대	54.3	78.9	(289)
40대	63.6	67.3	(55)
자녀수			
1명	48.6	65.7	(35)
2명	54.8	79.4	(248)
3명 이상	56.4	79.2	(101)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51.6	78.2	(124)
300만원~400만원 미만	55.6	77.8	(99)
400만원~500만원 미만	58.1	75.7	(74)
500만원~700만원 미만	55.3	82.9	(76)
800만원 이상	54.5	63.6	(11)
맞벌이 여부			
외벌이	55.9	76.1	(213)
맞벌이	55.1	80.4	(158)
무직	30.8	84.6	(13)
최종학력			
고졸이하	52.1	72.3	(94)
전문대졸	53.3	81.9	(105)
4년제졸	53.5	78.7	(155)
대학원이상	73.3	80.0	(30)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임.

〈부표 6〉 첫만남이용권 사용처별 사용대상: ⑥ 문화생활비(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해당 자녀	가족 (본인 포함)	사례수
전체	33.3	76.2	(21)
연령			
20대	16.7	100.0	(6)
30대	41.7	58.3	(12)
40대	33.3	100.0	(3)
자녀수			
1명	50.0	75.0	(4)
2명	26.7	80.0	(15)
3명 이상	50.0	50.0	(2)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30.0	90.0	(10)
300만원~400만원 미만	50.0	50.0	(4)
400만원~500만원 미만	25.0	75.0	(4)
500만원~700만원 미만	100.0	0.0	(1)
800만원 이상	0.0	100.0	(2)
맞벌이 여부			
외벌이	30.8	76.9	(13)
맞벌이	33.3	66.7	(6)
무직	50.0	100.0	(2)
최종학력			
고졸이하	40.0	70.0	(10)
전문대졸	0.0	100.0	(1)
4년제졸	30.0	80.0	(10)
대학원이상	-	-	(0)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임.

〈부표 7〉 첫만남이용권 사용처별 사용대상: ⑨ 교통비(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해당 자녀	가족 (본인 포함)	사례수
전체	29.4	94.1	(85)
연령			
20대	18.2	100.0	(11)
30대	31.7	93.3	(60)
40대	28.6	92.9	(14)
자녀수			
1명	22.2	88.9	(9)
2명	29.6	92.6	(54)
3명 이상	31.8	100.0	(22)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4.0	100.0	(25)
300만원~400만원 미만	30.4	95.7	(23)
400만원~500만원 미만	33.3	94.4	(18)
500만원~700만원 미만	33.3	83.3	(18)
800만원 이상	0.0	100.0	(1)
맞벌이 여부			
외벌이	29.4	96.1	(51)
맞벌이	31.0	89.7	(29)
무직	20.0	100.0	(5)
최종학력			
고졸이하	16.7	94.4	(18)
전문대졸	36.8	100.0	(19)
4년제졸	31.7	92.7	(41)
대학원이상	28.6	85.7	(7)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임.

〈부표 8〉 첫만남이용권 사용처별 사용대상: ⑩ 기타(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해당 자녀	가족 (본인 포함)	사례수
전체	63.4	62.4	(93)
연령			
20대	50.0	80.0	(10)
30대	68.7	58.2	(67)
40대	50.0	68.8	(16)
자녀수			
1명	75.0	62.5	(8)
2명	60.0	61.7	(60)
3명 이상	68.0	64.0	(25)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59.1	77.3	(22)
300만원~400만원 미만	65.4	50.0	(26)
400만원~500만원 미만	70.8	58.3	(24)
500만원~700만원 미만	56.3	68.8	(16)
800만원 이상	60.0	60.0	(5)
맞벌이 여부			
외벌이	62.5	68.8	(48)
맞벌이	62.5	57.5	(40)
무직	80.0	40.0	(5)
최종학력			
고졸이하	63.2	57.9	(19)
전문대졸	61.9	66.7	(21)
4년제졸	68.2	61.4	(44)
대학원이상	44.4	66.7	(9)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임.

〈부표 9〉 첫만남이용권 신청/이용 편리성: ① 신청 방법

단위: %, 점,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100점 환산 평균	사례수
전체	0.8	1.6	11.8	19.9	66.0	4.49	87.2	(2000)
연령								
20대	0.6	1.2	11.6	20.9	65.7	4.50	87.5	(172)
30대	0.9	1.5	11.2	19.6	66.8	4.50	87.5	(1522)
40대	0.3	2.3	15.0	20.6	61.8	4.41	85.3	(306)
$\chi^2(df)/F$	6.631(8)					1.522		
자녀수								
1명	0.7	2.0	14.4	19.0	63.8	4.43	85.8	(541)
2명	0.5	0.7	10.1	20.3	68.3	4.55	88.8	(1106)
3명 이상	1.4	3.7	13.0	19.8	62.0	4.37	84.3	(353)
$\chi^2(df)/F$	26.881(8)**					8.020***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1.1	1.3	14.9	19.5	63.2	4.42	85.5	(524)
300만원-400만원 미만	0.4	1.9	11.7	20.2	65.8	4.49	87.3	(514)
400만원-500만원 미만	0.8	1.1	8.7	21.1	68.4	4.55	88.8	(380)
500만원-700만원 미만	0.4	2.2	11.9	19.4	66.0	4.48	87.1	(453)
800만원 이상	1.6	0.8	8.5	18.6	70.5	4.56	89.0	(129)
$\chi^2(df)/F$	16.997(16)					1.688		
맞벌이 여부								
외벌이	0.9	1.6	13.3	20.4	63.8	4.45	86.2	(1039)
맞벌이	0.6	1.2	9.7	19.6	68.9	4.55	88.8	(896)
무직	1.5	6.2	16.9	15.4	60.0	4.26	81.5	(65)
$\chi^2(df)/F$	20.122(8)*					6.419**		
최종학력								
고졸 이하	1.2	1.2	13.2	18.4	66.1	4.47	86.8	(342)
전문대 졸	1.1	2.1	13.5	19.0	64.2	4.43	85.8	(525)
4년제 졸	0.5	1.1	11.1	21.2	66.1	4.51	87.8	(917)
대학원 이상	0.0	3.2	8.3	19.0	69.4	4.55	88.7	(216)
$\chi^2(df)/F$	16.787(12)					1.526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임.

〈부표 10〉 첫만남이용권 신청/이용 편리성: ② 이용가능업체/물품

단위: %, 점,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100점 환산 평균	사례수
전체	1.0	2.8	16.1	20.0	60.2	4.36	83.9	(2,000)
연령								
20대	0.6	2.3	15.7	23.3	58.1	4.36	84.0	(172)
30대	0.9	2.7	15.5	19.4	61.5	4.38	84.5	(1522)
40대	1.3	3.6	19.3	20.9	54.9	4.25	81.1	(306)
$\chi^2(df)/F$	7.140(8)					2.723		
자녀수								
1명	0.9	3.5	18.9	20.9	55.8	4.27	81.8	(541)
2명	0.8	2.2	15.2	19.0	62.8	4.41	85.2	(1106)
3명 이상	1.4	3.7	14.7	21.5	58.6	4.32	83.1	(353)
$\chi^2(df)/F$	12.424(8)					4.391*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0.8	3.1	19.8	21.0	55.3	4.27	81.8	(524)
300만원-400만원 미만	0.8	3.7	15.8	22.8	57.0	4.32	82.9	(514)
400만원-500만원 미만	1.1	2.1	13.7	18.2	65.0	4.44	86.0	(380)
500만원-700만원 미만	0.7	2.6	15.2	18.3	63.1	4.41	85.2	(453)
800만원 이상	3.1	0.8	12.4	15.5	68.2	4.45	86.2	(129)
$\chi^2(df)/F$	29.759(16)*					2.878*		
맞벌이 여부								
외벌이	1.0	3.0	18.0	20.7	57.4	4.31	82.6	(1039)
맞벌이	0.9	2.5	13.3	19.4	64.0	4.43	85.8	(896)
무직	1.5	4.6	24.6	15.4	53.8	4.15	78.8	(65)
$\chi^2(df)/F$	16.226(8)*					6.246**		
최종학력								
고졸 이하	1.2	2.3	22.2	18.4	55.8	4.25	81.4	(342)
전문대 졸	1.1	3.4	17.9	19.2	58.3	4.30	82.5	(525)
4년제 졸	1.0	2.3	14.0	21.4	61.4	4.40	85.0	(917)
대학원 이상	0.0	4.2	11.1	18.1	66.7	4.47	86.8	(216)
$\chi^2(df)/F$	25.677(12)*					3.913**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임.

〈부표 11〉 첫만남이용권 신청/이용 편리성: ③ 이용기간

단위: %, 점,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100점 환산 평균	사례수
전체	1.9	2.8	15.5	13.5	66.5	4.40	85.0	(2,000)
연령								
20대	1.7	3.5	19.2	12.8	62.8	4.31	82.8	(172)
30대	1.8	2.5	14.7	13.7	67.3	4.42	85.6	(1522)
40대	2.3	3.9	17.0	12.7	64.1	4.32	83.1	(306)
$\chi^2(df)/F$	6.111(8)					2.064		
자녀수								
1명	2.4	4.3	17.6	13.7	62.1	4.29	82.2	(541)
2명	1.6	2.4	13.5	12.8	69.7	4.47	86.7	(1106)
3명 이상	1.7	2.0	18.4	15.0	62.9	4.35	83.9	(353)
$\chi^2(df)/F$	18.257(8)*					6.628**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1	3.8	18.5	14.7	60.9	4.28	82.1	(524)
300만원~400만원 미만	2.5	2.1	14.4	15.6	65.4	4.39	84.8	(514)
400만원~500만원 미만	1.3	2.4	15.0	10.5	70.8	4.47	86.8	(380)
500만원~700만원 미만	1.5	3.1	13.7	12.6	69.1	4.45	86.1	(453)
800만원 이상	0.8	1.6	14.7	11.6	71.3	4.51	87.8	(129)
$\chi^2(df)/F$	21.323(16)					3.081*		
맞벌이 여부								
외벌이	2.0	2.9	17.7	14.0	63.4	4.34	83.5	(1039)
맞벌이	1.6	2.7	12.2	13.1	70.5	4.48	87.1	(896)
무직	3.1	3.1	24.6	10.8	58.5	4.18	79.6	(65)
$\chi^2(df)/F$	19.363(8)*					7.024***		
최종학력								
고졸 이하	2.9	2.9	21.3	10.5	62.3	4.26	81.6	(342)
전문대 졸	2.7	3.0	17.1	13.9	63.2	4.32	83.0	(525)
4년제 졸	1.4	2.6	13.5	14.4	68.0	4.45	86.3	(917)
대학원 이상	0.0	2.8	10.2	13.0	74.1	4.58	89.6	(216)
$\chi^2(df)/F$	30.79(12)**					6.928***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임.

〈부표 12〉 첫만남이용권 신청/이용 편리성: ④ 전반적인 만족도

단위: %, 점,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100점 환산 평균	사례수
전체	1.5	1.9	10.9	19.5	66.4	4.47	86.8	(2,000)
연령								
20대	0.6	2.3	11.0	22.7	63.4	4.46	86.5	(172)
30대	1.4	1.8	10.9	18.7	67.1	4.48	87.1	(1522)
40대	2.6	1.6	10.5	21.2	64.1	4.42	85.6	(306)
$\chi^2(df)/F$	6.445(8)					0.616		
자녀수								
1명	1.8	2.8	12.2	22.0	61.2	4.38	84.5	(541)
2명	1.4	1.1	9.7	18.4	69.4	4.54	88.4	(1106)
3명 이상	1.4	2.8	12.5	18.7	64.6	4.42	85.6	(353)
$\chi^2(df)/F$	18.017(8)*					6.63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1.1	2.7	13.5	20.0	62.6	4.40	85.1	(524)
300만원-400만원 미만	1.6	2.3	11.9	18.1	66.1	4.45	86.2	(514)
400만원-500만원 미만	2.4	1.6	7.9	16.6	71.6	4.53	88.4	(380)
500만원-700만원 미만	1.1	0.4	9.9	23.2	65.3	4.51	87.8	(453)
800만원 이상	1.6	2.3	7.8	17.8	70.5	4.53	88.4	(129)
$\chi^2(df)/F$	27.826(16)*					1.814		
맞벌이 여부								
외벌이	1.7	2.2	12.6	20.3	63.1	4.41	85.2	(1039)
맞벌이	1.2	1.2	8.4	18.9	70.3	4.56	89.0	(896)
무직	1.5	4.6	16.9	13.8	63.1	4.32	83.1	(65)
$\chi^2(df)/F$	21.813(8)**					8.101***		
최종학력								
고졸 이하	2.0	1.2	15.5	20.5	60.8	4.37	84.2	(342)
전문대 졸	2.3	3.4	12.8	15.4	66.1	4.40	84.9	(525)
4년제 졸	1.0	1.6	8.7	21.5	67.2	4.52	88.1	(917)
대학원 이상	0.9	0.0	7.9	19.0	72.2	4.62	90.4	(216)
$\chi^2(df)/F$	40.594(12)***					5.972***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임.

〈부표 13〉 2023년 출산/양육 정책 관련 제안(중복응답)

단위: %	
항목	비율
지원금을 확대 해야 한다	21.6
가족카드처럼 2개 이상의 카드가 발급되었으면 한다	11.0
카톡을 통해 신청이 가능했으면 한다	9.6
신청방법이 편리했으면 한다	5.3
사용 범위를 확대 해야 한다	5.2
신청후 지원금 지급이 신속 해야 한다	3.9
현금으로 지원 해야 한다	3.3
지원금이 산후조리원,병원비가 충당되었으면 한다	3.3
지원금 만큼 사용처 비용 상상을 제재해야 한다	3.1
지원금이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었으면 한다	1.9
출산전/출생신고 이전에 사용 가능했으면 한다	1.9
양육비 지원을 확대 해야 한다	1.8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1.6
사용 기간을 확대 해야 한다	1.6
홍보를 확대 해야 한다	1.3
출산후 자동 신청이 되었으면 한다	1.2
잔액,사용처 내역 조회가 편리했으면 한다	1.1
자녀수에 따른 차등 지원을 해야 한다	1.1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확대 해야 한다	1.1
온라인 사용처를 확대 해야 한다	1.0
첫만남이용권 적용된 카드를 결제시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으면 한다	1.0
지원금 확대가 출산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0.8
아이 돌봄, 어린이집, 보육시설을 확대 해야 한다	0.7
출산지원 정책을 확대 해야 한다	0.7
지원금을 매월 또는 매년 지급 해야 한다	0.6
신청 방법이 다양했으면 한다	0.6
사용처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다	0.6
출산용품 외에 명품가방등의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0.6
카드제휴를 확대 해야 한다	0.6
실사용 카드에 바우처가 지급되었으면 한다	0.6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0.6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0.5
육아지원 정책을 확대 해야 한다	0.5

본 연구에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임.

2023년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조사